

ISSN 2733-564X

#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제2호 (2023년 10월)

**KAMFT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 부부가족상담연구

제4권 제2호 (2023년 10월)

## 목 차

---

□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상담사 자기치유와 내담자 치유와의 연결고리 이윤재 · 오제은 · 박은아 · 하영윤 .....	1
□ 상담자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에 대한 함의적 질적 연구 : D 대학원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김민하 · 배임순 · 정정교 · 홍성희 .....	25
□ 중국 부부 문제의 현황, 원인 및 과제 조양 · 강미진 .....	49
□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류수정 · 박은아 · 정현희 .....	65
□ 빅데이터에 나타난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영 · 천성문 · 김민지 .....	83

---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치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사 자기치유와 내담자 치유와의 연결고리\*

이 윤 재\*\*

오 제 은

박 은 아

하 영 윤\*\*\*

내면아이치료연구소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본 연구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이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과의 상담관계를 통해 얻는 경험들을 이해하고자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내면아이치료 경험을 가진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밝혀준 386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한 후 중복되거나 구조 밖의 것들을 제외한 83개의 중심의미를 구성하였다. 중심의미들을 다시 24개의 하위구성요소와 8개의 핵심 구성요소인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함',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봄', '놀라운 아이를 만남', '치유에 확신이 생김',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아이와의 만남',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돌봄에 함께 함', '또 다른 놀라운 아이를 만남', '함께 동반 성장함'로 의미구조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참여자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치유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재구성하여 일반적 구조 기술로 통합,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가지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와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기술하였으며,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치유 경험, 내면아이치료,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

\* 이윤재(2023년)의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이윤재, 내면아이치료연구소 부소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영윤,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커플가족치료대학원 상담학 교수,  
321 South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 USA,  
E-mail: youngyoon@daybreak.edu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면 아이(Inner Child)'란 몸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은 아이인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다. 내면아이의 개념은 미술작품,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등에 빈번하게 나타날 정도로 사회 문화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례로, 2001년 국내에 개봉되었던 영화 키드(The Kid)는 8살 때의 어린아이였던 자신이 성인이 된 주인공을 찾아오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Turteltaub, 2000), 2015년 Burning Man 페스티벌에서 예술가 Alexander Milov가 제작한 작품 '사랑(love)'은 와이어 프레임(Wire Frame)으로 이루어진 성인의 신체 내에 존재하는 내면아이를 표현하고 있다(My modern met, 2015).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K-POP가수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뷁의 솔로곡 'Inner Child'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매일신문, 2020).

내면아이는 대중적 인식과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현대심리치료의 최신 이론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 가족치료 모델 중 하나인 '내면부모자녀체계치료(Internal Parent Child System Therapy: IPCST)'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처받은 어린아이로, 즉 '내면아이'로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오제은, 김혜진, 2018). 커플관계치료로서 최고의 임상 효과로 널리 알려진 이마고관계치료에서도 커플들이 서로를 향해 각자의 유아기적 소망들을 하나씩 드러내게 되면서부터 커플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를 '마치 상처받은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Hendrix & Hunt, 2022). 특히, 오제은(2005)은 이마고관계치료 과정 중 커플 각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를 위해 내면아이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치료 뿐 아니라 가족치료 및 커플

플관계치료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상담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내면아이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아이의 개념을 치료 과정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사들에게 수련 과정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이미정, 2014), 부부가족상담사가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경험에 있어서 원가족과의 경험에 대한 자기이해 수준이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강유리, 오제은, 김혜진, 박은아, 2023)는 연구 결과들이 말하고 있듯이, 상담사 자신의 수련 및 현장에서의 경험은 내담자의 치료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이 상담사로서의 전문적인 수련과 임상 경험을 통해 상담사로서 자기 자신의 치유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나아가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가 상담하게 되는 내담자의 치유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치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면아이치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적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역할은 다른 심리 치료적 접근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고, 성공적인 상담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변화를 구성함으로써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imon, 2006). 상담에서 가장 좋은 기법은 상담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Corey, 2010). 실존주의 심리학자 May(1989)도 상담사 자신이 '도구로서의 자기(Self-as-Instrument)'가 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20세기 심리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신분석의 창시자 Freud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담사가

내담자의 '새로운 부모 역할(Re-parenting)'을 하는 것을 어린 시절 치유의 핵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오제는, 2011). '새로운 부모 역할(Re-parenting)'이라는 개념은 내담자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부모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Del Casale, Munilla, de Del Casale & Fullone, 1982).

내면아이치료에서 상담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정신 역동적 심리치료를 비롯한 전통적인 상담 이론에서의 역할과는 달리, 성인인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내담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아이를 돌보고 치유하도록 촉진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오제는, 2005). 또한, Paul(2013)은 '내면아이'의 개념이 어린 시절과는 구분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본래의 모습이며, 감정을 우선시하는 '직감적인 본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치심 증독 속에 갇혀 있는 상처받은 아이의 거대한 감정을 견드려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adshaw, 2004). 이러한 내면아이치료 과정에서 상담사는 내담자 자신이 무의식적 상상여행을 통해 내면아이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오제는, 2013). 이러한 내면아이치료 과정을 내담자들에게 잘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사로서 먼저 자신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치유와 성장해 나가는 선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는 상담사 자신의 어린 시절 감정과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던 경험을 통해 내담자들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내담자들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Miller, 2019; Nouwen, 1999). 한편, 상담사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상담사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오제는, 김혜진, 2018). 따라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자기치유 과정을 거치고 자기 양육과 돌봄을 훈련하여 내담자에게 내면아이치료를 선 경험한 모델로서 적용하는 과정은 내면아이치료가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안에서 반복된 직면과 계속된 검증 과정을 거듭하며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면아이치료 과정은 내담자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상담사에게도 새로운 자신의 내면아이를 확인하고, 자기치유의 상태와 과정을 확장시키며 도구로서의 상담사로서 자신을 연마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면아이치료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제는(2005)이 내면아이치료를 중심으로 한 커플 관계에 대한 논문을 국내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2020년도에 이르러 여러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으나, 주로 내면아이치료를 경험한 내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이윤재, 2021). 내담자를 대상으로 내면아이치료가 커플 관계의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박진수, 최광현, 2020) 및 내면아이치료 이후 자기수용 및 대인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진경, 황경애, 2020; 주보람, 2013; 황경애, 2020)이 있었다. 또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우울에 관한 연구(박혜리, 2016),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신차신, 2010; 유숙경, 이경원, 2020)과 부모교육에 관련한 연구들(문경일, 오태주, 박은아, 2023; 안지현, 이동천, 권영란, 2015; 이동천, 2014)이 있었다. 내면아이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들에서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내면의 변화와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해 타인의 평가도 변화되었음을 보여준 연구(오제는, 2005), 어린 시절의 상처치유 경험이 부부관계의 회복 및 향상과 관련됨을 보이는 연구

들(박영현, 박승민, 2015; 오제는, 2009)을 통해 내면아이치료 경험이 내담자가 맺는 관계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면아이치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담자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사의 입장에서 내면아이치료 경험을 다룬 연구, 특히 상담사가 내면아이치료 과정을 통해 본인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경험이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상담사 자신이 상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과정의 의미를 밝히고,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치료 요인으로서 상담사를 이해하며, 상담사로 하여금 상담사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도록 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을 참여자로 하여 내면아이상담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담사의 선 경험, 자기치유 경험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경험이 상담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는 내면아이치료가 무엇인 지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그들 자신의 치유 경험은 내면아이치료를 통한 어린 시절의 상처치유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경험에 관한 이 연구의 탐색 과정은 내면아이치료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기회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중심 연구 질문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며,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자기

치유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자기치유를 경험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내면아이치료를 실시할 때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자기치유 경험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 방 법

###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상담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기술을 분석하여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방법으로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여 '사태 그 자체'로 현상의 본질을 드러내어 기술하는 방법이다(Omery, 1983).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고유한 경험과 의미의 세계가 드러나도록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본질을 탐색해 나가는 연구에 적합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에서도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해석보다는 기술을 강조하는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 접근을 활용하였다. '경험적인 현상학적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Giorgi(2004) 분석방법은 연구자의 기존 경험이나 선입견을 벗어나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개별적이고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제를 기술하거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기술함으로써 '경험한 대로의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Giorgi, 2004; 이남인, 2014). '경험한 대로의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다양한 현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로 돌아감을 의미한다(Giorgi,

2004).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일상적인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이남인, 2014). 이와 같은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 자신의 치유 경험과 상담 장면에서의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과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풍부하고 생생하게 기술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 연구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현상학적 연구를 위해 참여자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적절성과 충분성이다. 적절성이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참여자를 선별하는 것이고, 충분성이란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8).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대체로 5~2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진다(Creswell, 2015).

이러한 참여자 선정의 고려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상담대학원 석사 이상의 수련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Skovholt와 Ronnestad(1992)는 상담영역에서 상담사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석사과정 대학원 시기에 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전문가 과정 3학기를 통해 내면아이치료 수련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선정하였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전문가 과정 수련을 위해서는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와 내면아이치료 이론과 실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내담자들에게 내면아이치료 과정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사로서 내면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치유와 성장을 선 경험하는 과정이기에,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의 훈련과 상담 경험을 적절하게 이

표 1.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수련 과정

프로그램명	기간	내용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3박 4일 / 45시간	무의식적 상상작업 및 내면아이 만나기 내면아이에게 편지쓰기 내면아이와 대화/어린 시절 부모와의 대화
내면아이치료 이론과 실제	2일 / 16시간	내면아이 개념 소개 내면아이치료 소개 내면아이치료 대화법 소개 및 실제 경험
내면아이치료 상담전문가 과정	3학기 (6개월 마다 30시간씩 3회) / 총 90시간	심리발달단계에 따른 미해결과제 심층탐색 내면아이 대화법 실습 내면아이치료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

야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자신의 치유와 성장을 포함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수련 과정은 표 1과 같다.

셋째,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소속 내면아이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소지한 상담사로 선정하였다. 이 기준을 정한 이유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내면아이상담전문가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15시간의 상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에서 촉진자로서 3회 이상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 활동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째, 5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상담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내면아이상담전문가로서 이론적, 임상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양한 사례에 적절히 대처하는 풍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담 경험이 5-10년이 필요하다는 연구(주은선, 김주영, 2002)가 이에 대한 근거를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 가

**표 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활동연수
참여자 1	여	60대	박사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11년
참여자 2	여	50대	박사 수료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6년
참여자 3	여	30대	박사 과정 중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8년
참여자 4	여	50대	석사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11년
참여자 5	여	40대	석사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11년
참여자 6	여	40대	박사 수료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11년
참여자 7	남	40대	박사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5년

장 적합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소속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중 각기 다른 상담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 가운데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사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밝히고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와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에 동의하는 상담사들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참여자 모집을 종료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구참여자는 7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특징은 표 2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다루고 있는 만큼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IRB 승인을 받아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연구자는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참여동의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상호 교환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연

구참여자들에게 언제든지 연구에서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문서로 고지하고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의 비밀 보장을 위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의 노출에 주의하여 모든 내용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숙경 외, 2022; 노미화, 최연실, 2015; 이미정, 2015; 전은숙, 김혜진, 2022)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참고하고 연구자 본인이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전문가로서 상담현장에서 내면아이상담사를 훈련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지도교수 및 숙련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1인의 검토를 받아 질문지를 수정해나갔다. 2022년 12월 초 예비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면담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심층 면담을 위한 기본 질문**

번호	질문
1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의 자신의 내면아이치유 경험은 무엇인가요?
3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 수련 과정에서의 치유 경험은 무엇인가요?
4	상담사로서 내면아이치료를 실시할 때 나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5	상담사로서 나의 내면아이치료 경험은 내담자를 상담할 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6	내가 경험한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경험은 무엇인가요?
7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2022년 12월 말에서 2023년 2월까지 연구동 의서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연구참여자가 개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대면 면담과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면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7명의 면담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1차 분석에서 진술한 경험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면담은 한 사람당 1회에서 2회로 진행되었고, 각 회기마다 면담 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3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 또는 녹화하였으며, 이를 연구자가 직접 전사(transcribe)하였다. 면담 과정 및 직후에는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태도에 대한 관찰내용에 대해 현장 일지를 작성하고, 연구 노트를 통해 연구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수퍼비전을 받기 위해 내면아이치로 실시 후 작성하였던 상담사례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중 치료과정에서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 of the Therapist)에 대한 경험을 서술한 내용을 추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 이후 추가 질문이 필요할 경우, 참여자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과정을 거쳤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의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에 따른 4단계의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Giorgi, 2004). 첫 번째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전사한 축어록을 2-3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어떠한 편견과 선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배제하고자 괄호치기를 시도하며, 다음 단계에서 의미 단위를 구별하기 위한 토대로서

의 일반적인 읽기를 반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미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에 문장에 사선(/)으로 표시해 가며,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언어 그 자체를 사용해 가며 전체 참여자들로부터 도출된 의미 단위 간 서로 비교하며 지나치게 개별적인 의미 단위들은 제외하고, 동일한 의미들을 모아 최종적으로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의미 단위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비교하여 동일한 의미 단위를 모으고 요약하면서 도출된 '중심의미'를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학문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상학적 관점에서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환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도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Giorgi(2004)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도출된 주제별로,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을 사례별로 비교함으로써 상향적 구조와 통합적인 일반적 구조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연구의 엄격성 확보

연구자는 2011년부터 내면아이치로연구소에서 오제는이 진행하는 내면아이치로 집단상담 및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서 내면아이치유 소그룹 리더 및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해 왔다. 내면아이치로연구소는 내면아이치로(Inner Child Therapy)를 한국에 정착시키고자 학술연구와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 중독,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내면아이치료를 통해 단기간에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내면아이상담전문가들이 수련 과정과 상담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을 목도해 오면서 다른 상담기법들과 차별된 내면아이치료만의 독특한 상담 경험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즉 '미해결 과제(Unfinished Business)'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겪은 갈등을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및 내면아이치료 상담 전문가 과정을 통해 자신의 치유와 성장을 직접 경험하였다. 또한, 내면아이치료를 통한 어린 시절 상처치유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음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내면아이치료를 통한 자기치유 경험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에게 내면아이치료의 치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 요건이 될 것이고, 나아가 내담자와의 치료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이해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자의 경험과 선이해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사고와 감정을 고찰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에 대한 목록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선행 경험에 대한 괄호치기를 시도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수련 과정을 통해 경험한 자기치유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나 통찰이 상담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전자 자료 및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점검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다수 있는 지도교수와 박사 과정생 1인으로부터 자료 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자문 과정을 거쳤다. 넷째,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고, 또한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수 과정을 계속 거치며 원자료로 돌아가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자료의 다원화를 위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위해 현장일

지, 연의 자기반성 자료, 연구 노트, 연구참여자와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자료의 수집 시 다각화를 추구하고, 자료의 내용과 관련한 맥락이 교차 검증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 결 과

### 상황적 구조 기술

상황적 구조 기술에서는 참여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고,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

표 4. 구성요소 분석 결과표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이제야 만나게 된 무의식 속의 나 현재의 고통을 통해 만나는 과거의 나 떠오르는 핵심장면들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함
울어줄 때 치유되는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 따뜻하게 자신을 스스로 양육하는 부모역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기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나누는 대화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봄
내면의 힘이 생김 나다워짐 변화되는 관계들	놀라운 아이를 만남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김 다른 이들의 치유에 관심이 생김	치유에 확신이 생김
이름을 부를 때 떠오르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내담자와 함께 머물러 줌 내담자의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 줌 내담자를 통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남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아이와의 만남
내담자의 슬픔에 함께 함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주도록 도와줌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돌봄에 함께 함
내담자가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봄 내담자의 '진짜 나'를 만남	또 다른 놀라운 아이를 만남
자신의 내면아이와 내담자의 내면아이가 만나는 경험을 함 자신의 존재이유를 느낌 상처가 자원이 됨	함께 동반 성장함

을 취한다.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밝혀준 386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한 후 중복되거나 구조 밖의 것들을 제외한 후 83개의 중심의미를 구성하였다. 중심의미를 다시 24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8개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함

참여자들은 내면아이치로 상담사가 되기 전, 자신의 현재 가족관계나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 내면아이치유 집단상담이나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야 만나게 된 무의식 속의 나

내면아이를 만나는 작업은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과정이다. 자신의 알 수 없는 감정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며 자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떠올리는 내면아이치유 작업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신의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신기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굉장히 무의식 안에 있었던 어떤 아이의 모습을 나중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중략)...어떤 옷차림새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의 어떤 부모님의 관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게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현재의 고통을 통해 만나는 과거의 나  
과거의 나를 만나러 가는 순간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는 체하지 않고 만나줄 때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과거의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느꼈던 현재 현재의 어려움에서 연결되는 그 과거를 떠올리고 거기서의 나를 상상하면서 내 이름을 그냥 불렀는데 그때 이제 자기와 이렇게 만나지는거죠. <참여자 3>*

떠오르는 핵심장면들

어린 시절 상처의 경험은 수없이 많겠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상처받았던 그 내면아이를 명명화하고 생생하게 만나주는 것이다. 과거의 나이지만 현재 여전히 살아있는 나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상담이었는데 처음 했던 내면아이 경험인데도 그 안에서 내면아이치유가 되었죠...(중략)...6명이 딱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핵심장면이 그 집단상담에서 다 떠오른 거예요...(중략)...이렇게 큰 덩어리도 있다가 그러니까 이 장면 이 분화되고 좀 분별되는 거죠 명료화 한거죠 <참여자 6>*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봄

참여자들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찾았다”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방법들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해 나갔다. 자신의 결핍과 욕구들을 다른 이들을 통해 채우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언어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터득해 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울어줄 때 치유되는 나

어린 시절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언어이자 자기표현방식은 “울음”이

다. 내면아이를 돌보는 작업을 위해 자신의 내면아이의 좌절된 욕구와 상실에 대한 슬픔에 대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 위해 자신을 위해 울어주며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박 4일이라는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라는 곳에서부터 울기 시작했죠... (중략)...전문가과정에서 매주 만나면서도 나오고 또 울게 되고 그 이야기하면서 또 울고 그때는 그냥 하여튼 내면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올 때마다 울어주고 치유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참여자 1>

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

타인의 눈치를 보며 타인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느라 자신의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던 참여자들은 자신 스스로 자신을 알아주기 시작하며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행복해하게 된다.

그냥 든든하게 그리고 하여튼 이로 말을 할 수 없이 나 혼자라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너무 나는 행복해라는 그런 이렇게 광광 뛰는 에너지가 있어서 <참여자 1>

따뜻하게 자신을 스스로 양육하는 부모역할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모 역할을 해 줌으로써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

성인인 내가 이제 힘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또 치유를 위해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의 통합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정말 그 부모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아주 따뜻한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양육하는 <참여자 3>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잘 알아서 받고 싶었던 그것을 해주는 일이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일시적

인 것이 아니라 상담 장면 밖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계속된다.

어릴 때 많이 긴장했을 때 이런 초콜릿을 먹고 싶었는데...(중략)...먹으면 또 좋아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 “내가 네가 긴장할 때 네가 원했던 이런 초코 초코를 녹여줄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듯이 그 트라우마 상태의 트리거처럼 그때 장면으로 인큐베이터 타임머신타고 돌아갔을 때 필요했던 거 성인인 내가 이 아이에게 선물하는 거죠 <참여자 6>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만나는 대화

스스로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듣고 싶었던 힐링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한다.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토닥이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참여자 5>

## 놀라운 아이를 만남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가며 사회에 적응해 가느라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집단상담 등의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을 만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돌보는 과정 가운데 내면 안에 살고 있던 잃어버렸던 자신의 창의적이고 순진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

내면의 힘이 생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 아래에서 힘이 없었던 그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보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 안에 힘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내가 뭔가 힘이 생긴다. 마음의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해낼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약간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걸어가더라도 뭔가 빛이 있어서 두렵지 않은 느낌을 주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참여자 5>

### 나다워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 누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나다워짐”, “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스스로를 조금 이제 수용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용기도 더 생기고 그런 뭔가 조금 더 저다워질 수 있는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경험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이제 금지당했던 많은 것들을 허락을 받게 하면서 창피해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면서 혼자 추측하고 이제 금지당했던 여자이면서 말썽장이이고 말괄량이이고 개구장이고 악동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략)... 재생되고 부활한 것 같아요. <참여자 6>

### 변화되는 관계들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아이를 발견하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먼저 가족과 의미있는 관계들 안에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어머니를 뛰어넘을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중략) ... 이런 게 일단은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그 작업에서는 그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동안의 애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좀 빼이빼이를 하면서 많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내면아이상담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저의 변화는 일단은 첫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중략)... 원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현재 남편과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가 저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관계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또 그 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참여자 5>

## 치유에 확신이 생김

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접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나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상담 장면 안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절망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내담자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내담자를 버티게 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김

내면아이치료를 통해서 자신 안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내담자를 만나든 그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 자체로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의 변화로 인해 내담자들을 만날 때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고 한다.

그 힘든 세상이 그제 전부가 나를 잡아삼킬 것 같고 그제 끝일 것 같다는 절망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절망감을 뚫고 희망이 있다는 걸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그냥 희망 전도사가 되는 느낌처럼... (중략)...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중략)... 절망을 뚫고 올라가서 바로 위에 태양이 우리를 위해 존재해 주고 있을 거야라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버티게 해주는 힘 <참여자 1>

내가 경험한 게 너무나 전혀 생각치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의 경험들이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나타났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과 또 저를 바라보는 것의 변화도 있었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바뀌는 건데 이런 것이 이분에게도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우선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다른 이들의 치유에 관심이 생김

참여자들은 상처로 인한 상실과 고통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후 확신이 생기고 난 후, 자연스레 타인의 치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중략)...내가 먼저 이렇게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나도 해볼 수 있다면 그들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터치...이렇게 이끌고 이런 거 말고요 <참여자 6>

###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아이와의 만남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자신을 어린 시절 상처치유를 먼저 경험한 한 존재로 여긴다. 자신이 치유된 그 힘으로 다른 이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고 있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어린 시절 상처받은 또 다른 내면아이를 기꺼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이름을 부를 때 떠오르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 내면아이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부으며 떠올릴 때 어린 시절의 감정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자기의 힘든 촉발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서 떠올려지는 연관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자기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기와 접촉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어린 시절 자기의 상처받았던 그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막 접촉이 되거든요 <참여자 3>

내면아이를 만나기 위해 함께 머물러 줌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숨소리까지 맞추면서 스스로 자신의 내면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머무르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같이 이걸까 저걸까 같이 마음으로 느껴주고 머물러주고 상담할 때도...(중략)...그냥 머물러주고 이 사람이 무슨 걸 느끼는지 그냥 숨소리까지 같이 맞추면서 이 사람에서 나올 수 있게 그냥 기다려주는 거잖아 따뜻하게...(중략)...근데 내가 느껴진다고 그걸 그냥 얘기해서 끄집어내면 이 사람이 견뎌내고 이 사람이 바라봐줘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탁 뉴아체는 것 밖에 안 돼.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여기 그냥 머물러주는 거 <참여자 4>

내담자의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 줌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는 내담자를 존재 그대로 바라보며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허용해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상담사의 그런 존재로 대하는 태도...정말 이 사람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존재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그런 상담사의 어떤 태도가 중요해요...(중략)...어떤 기준이나 그런 걸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참여자 3〉*

내담자를 통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날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나 치유한다는 것은 단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을 함께 하며 돌보아야 한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와의 만남 속에서도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기도 한다. 내면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면서 실은 제 내면 아이도 많이 만나요...(중략)... 청소년기에 대한 애도 이런 것들이 좀 청소년 상담하면서 내 내면아이를 많이 돌보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여자 5〉*

### 또 다른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돌봄에 함께 함

내면아이치료에 있어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상처 치유를 위해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함께 있어 주며 그 과정을 잘 헤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게 된다.

내담자의 슬픔에 함께 함

내면아이를 만나면 내담자들의 다양한 감정이 먼저는 눈물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기질에 따라 다른 눈물 반응이기는 하나 내담자들이 자신을 위해 슬퍼하고 울어주는 순간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한다.

*내면아이를 하고 나면 줄줄 울든 아니면 드라이하게 울든 영영 울든 기질에 따라 다르게 이제 눈물 반응이 나오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울더라고요. 슬퍼하고 〈참여자 6〉*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주도록 도와줌

상담자는 과거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내가 상처 받은 장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질문과 문장줄기를 통해 촉진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내면아이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상담사로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도록 계속 조율해 간다고 이야기한다.

*표정이나 또 분위기나 느껴지는 것들을 같이 느껴보도록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나이가 지금 몇 살 내가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지금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중략)...내담자 스스로 알아주고 그걸 이제 그래 많이 무섭구나 너무 침대 밑에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무섭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알아주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율해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 또 다른 놀라운 아이를 만남

내면아이상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놀라운 아이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듯이 내담자들이 어린 시절의 내면아이를 만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장면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내담자가 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봄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상처가 되어 치유되는 순간을 매듭이 확 풀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담자의 내면 뿐 아니라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꽃처럼 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의 욕구가 도대체 뭘까 그런 딱 이제 매듭이 확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중략)...이제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장면으로 가요. 그래서 상처의 장면에서 이제 치유의 장면으로 이제 가고 그때 내담자가 이제 확 꽃이 필 때가 있어요 〈참여자 2〉*

내담자의 '진짜 나'를 만남

놀라운 아이를 만나는 순간은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을 다시 찾는 순간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내담자 안에 존재했으나 잃어버렸고 허용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발견했을 때 상담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면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뭐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중략)... 늘 그런 거에 의문점이 있었던 분들이 이 내면아이상담을 받으시고 나서는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느껴도 괜찮고 나에게 정말 이런 또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중략)...그래서 자기 별칭 중에 보석이라는 별칭도 되게 많이 쓰는데 진짜 그냥 보석을 발견을 한 거죠 자기라는 보석을...〈참여자 7〉

### 함께 동반 성장함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도 자신의 내면아이를 인식하면서 만난다. 상담사의 상처는 내담자의 치유를 위한 자원이 되고 내담자의 치유는 다시금 상담사의 존재 이유가 된다. 또한, 상담사 자신이 치유된 만큼 내담자가 치유됨을 경험하게 된다. 상담사와 내담자는 서로 순환적으로 자신의 상처 치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간다.

자신의 내면아이와 내담자의 내면아이가 만나는 경험을 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놀라운 아이를 발견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담사 자신의 내면아이가 내담자의 내면아이를 만나 함께 그 순간을 기뻐하는 경험을 한다.

내면아이상담은 가장 좋았던 게 일단은 나의 내면아이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내담자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는 더 좋아요...(중략)... 나의

내면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 아이를 또 보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치유되어 있는 윈더 차일드(wonder child)가 윈디드 차일드(wounded child)가 아니고 윈더 차일드가 몸은 어른인데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면 아이가 치유받았던 내면 아이가 내담자의 그 상처받은 아이 옆에 있으면서 똑 같은 재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내면아이로 함께 있어주는 그 느낌이 나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중략)...내면아이 치유할 때 내 내면아이가 튀어나와서 같이 올려주고 같이 춤추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이 말하는 게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중략)...만나주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노는 것 같아 〈참여자 1〉

나 자신의 존재이유를 느낌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상처가 치유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담사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된다.

내면아이상담이나 내가 나를 만나주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알아주었고 그리고 이게 또 나이를 먹고 또 공부를 더 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깊이 알아주게 되고 내가 나와 접촉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내담자와 만나잖아요 내담자와 진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담자가 정말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중략)...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감정 자체가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이나 만남 자체가 살아있구나라는 존재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거 〈참여자 5〉

상처가 자원이 됨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내담자를 만나는 자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자원을 가지고 상담 장면에서 만난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을 보게 되는 과정에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더 많은 자원을 얻게 된다.

옛날에는 이만큼의 상처가 있었다면 이 상처가  
자원이 돼서 지금은 이만큼의 열매가 됐어 그럼 애가  
상처가 조금 올라오면 또 열매 얻으려나보다...(중략)...  
내 상처는 나의 자원이 됐어 <참여자 4>

## 내면아이치로 상담사의 치유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기술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로서의 치유경험에서 나타난 본질적 주제를 현상학적인 반성을 통해 현상학적 글쓰기로 의미를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 내면아이치로 상담자가 경험한 치유 경험은 자신의 내면아이를 만나는 자기치유의 경험과 그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내담자의 치유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 재생산과 성장 및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에게 내면아이상담자가 되고, 이후 상담 장면에서 활동하면서 치유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은 흡사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비슷하다. 씨앗이 자라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되어 나무가 되기까지의 여정처럼 내면아이치로 상담사가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이 자원이 되어 타인의 상처 치유에 함께 하는 것 또한 조용하고 느리지만 놀라운 힘을 채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밑으로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뺏어 나가며 굳건히 서가는 동시에 위로는 누군가에게 닿을 많은 가지를 온몸으로 뻗으며 무수한 가지에 햇볕과 빗방울을 머금은 그런 나무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 첫 시작에서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는 자신의 상처를 고통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 상처는 결국 '치유의 씨앗'인 셈이다. 그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울고 또 울면서 그 상처를 스스로 보듬어 가는 가운데, 비로소 '돌봄'이라는 별 속에서 '치유의 씨앗'에 '새싹'이 움튼다. 어느새 그 '새싹'은 땅속에 묻혀 있던 창조 에너지의 '수액'을 힘차게 빨아드리며 본연의 모습을 점점 드러내며 '든든한 나무'가 되어 간다. 씨앗이 변한 것이 아니라

씨앗 속에 숨겨져 있던 원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는 여기저기로 '뻗은 가지'로 다시금 '홀씨'가 뿌려진다. 더 이상 상처는 상처가 아니다. 이제는 상처가 자원이 된다. '치유의 씨앗'인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본연의 모습인 '든든한 나무'로 자랄 것임을 알기에 희망과 기대로 '또 다른 나무'가 자라나길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내면아이치로 상담사와 내담자는 치유의 과정을 함께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해 간다. 나무와 나무가 기대어 숲을 이루어가는 모습과 닮아있다.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는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간절함을 품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 아픔을 먼저 경험하여 그 고통도, 그 이후 새롭게 빛나는 찬란함도 모두 알기에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들은 그저 내담자들의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지켜봐주고 함께 울어주며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이면에 존재하는 놀라운 아이를 기대한다. 나무는 또 다른 나무가 자라기까지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로를 엮어서 견고하게 지탱하며 함께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서로 존재하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나무도 스스로 자라서 '자신만의 빛깔'로 우뚝 서게 된다. 이제 어느덧 각양각색의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는 나무들이 자라 아름다운 '치유의 숲'을 이루는 것처럼 결국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들의 '존재 이유'가 된다. '치유 나무'들이 모여 만든 '치유의 숲'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속에 꽃이 피어난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그 존재 자체'로 저마다의 나무가 된다.

## 논 의

본 연구는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들이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로 경험한 치유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현상학적 접근으로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내면아이치료 상담전문가 과정 3 학기를 이수하고 상담 현장에서 5년 이상의 내면 아이상담 경력이 있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7명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선행 요건의 독특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되기 위해 시작한 여정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면아이를 직접 만나 그것이 치유되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내면아이치료 작업의 핵심은 어린 시절에 거절당하고 결핍된 욕구들로 인해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와야하며(오제은, 2013), 상담자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상담의 의미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담사의 수련 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턴상담사의 수련 과정을 통해 자기 분석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내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박응식, 2018)와 수련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 돌봄과 자존감이 형성되었다는 연구결과(이호은, 박승민, 2017; 이호은, 2021)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자기치유 경험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며, 이후 내담자의 내면아이치료를 이끄는 직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고, 무엇보다 강한 치유의 확신과 연관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수련 과정을 통해,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돌보는 작업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다위침을 경험함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치유

의 과정은 내면아이 상담사들에게 치유에 대한 확신과 내담자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치유 경험 뒤에는 '도움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내담자의 치유에 대한 관심과 '내가 치유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치유될 수 있다'는 치유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자신의 치유경험이 자원이 되어 내담자를 만나게 되는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이다. Jung(1963)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바람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타인을 돕고자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상담사의 상처치유경험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장시켜주고 내담자 치유에 대한 사명감과 확신을 주었다는 연구(이미정, 201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부상담사의 수련 과정에서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이 치유로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됨을 연구한 결과(이미정, 2014)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동형성(Isomorphism)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동형성(Isomorphism)이란 상담사 자신의 치유와 성장이 내담자의 성장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로, 내담자에게 있어 상담사 자신이 최고의 치료적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한다(오제은, 김혜진, 2018).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은 자기 자신이 치유된 만큼 내담자가 치유됨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만큼 내담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상담사와 내담자의 삶의 성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내담자들에게 진정한 치유 제공을 위해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자신이 먼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오제은(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마고 치료를 진행하는 상담사 자신과 자신

부부의 치료 수준에 따라 내담자 부부의 성장 수준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김숙경 외, 202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아이치유 경험은 상담사의 유능감(Competence)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상담사 자신이 직접 체험한 치유에 대한 확신은 내담자의 변화를 기대하는 데에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 상담사로서 유능감을 갖게 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상담사의 유능감(Competence)이란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상담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태도를 포함한 상담 전문가로서의 전체적인 적합성을 뜻한다(Rubin, 2007).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방어가 심한 내담자들을 대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유능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내담자들을 대하게 되더라도 주저함 없이 자신감 있게 상담에 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도 가지게 된 것이다. 상담사의 유능감이란 자기 효능감에서 비롯되며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상담사의 믿음'에서 나온다(전은숙, 김혜진, 2022)고 하였다. 가족치료사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상담자들이 상담사로서의 역할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는 유사한 연구 결과(Larson & Daniels, 1998)를 이야기하고 있다.

셋째, 내면아이치료가 상담사에게 있어 자신과 내담자의 이해를 높이는 수련 도구 및 지속적인 재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참여자들의 실제 체험과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에게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는 상담의 장애물이 아닌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자원이 되었다. Winnicott(1949)은 Freud 이후 내

담자의 감정과 성격에 대한 상담자의 역전이 감정이 객관적인 반응이라면 내담자의 심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치료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Heimann(1950)은 내담자의 문제를 통해 발생하게 된 상담자의 감정은 더 이상 방해물로만 작용하지 않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기능을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는 분석의 도구로도 간주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상담사로서의 자기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은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서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상담사 자신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역전이의 감정은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고 상담사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Goodyear(2014)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로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사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내면아이치료는 내담자를 치료하는 기법일 뿐 아니라 상담의 과정을 상담사 자신의 치유와 성장 과정으로 확장시켜 상담사 스스로를 점검하고 연마해가는 좋은 도구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를 통하여 개인적인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상담사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경험되어지는 만큼 상담사의 성장과 발전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연구 결과(Borders & Usher, 1992)를 그대로 체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상담경험에서 확인된 바, 내면아이치료가 다양한 관계문제는 물론, 중독과 트라우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내면아이치료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

계'등 다양한 관계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커플 치료에 있어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 경험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박영현, 박승민; 2015; 박진수, 최광현, 2020; 오제은, 2005)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안지현 외, 2015)와도 일치되는 결과다. 이와 더불어 '알코올이 사실 외로움 때문이고', '외로움을 자기가 채워주는 다른 방식들'을 알게 되었다는 내담자의 변화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내면아이치료가 중독과 같은 만성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독은 관계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중독의 핵심요소에는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있다(Bradshaw, 2004). 또한, Capacchione(1988)는 내면아이를 장난기 많고 (playful), 직관적(intuitive)이며 창의적(creative)이며, 성인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와 중독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내면아이의 상처를 상담장면에서 발견하고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먼저 수용해 감으로써 중독의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게 된다. 이는,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대상의 내면아이치료를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단약 의지에 대한 변화를 이룬다는 연구결과(신차선 2010; 유숙경, 이경원, 2020)와도 일치한다. 최근 중독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한 상담이 중독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박상규, 2018), 인지행동치료, 동기 강화 상담, 유관관리, 공동체 강화접근이 마약중독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김주은, 2020) 등 다양한 현대심리치료기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면아이치료 또한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체험이 시사해주고 있다.

다섯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닌 내담자들에게

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이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치유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존재로 단단히 내담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내면아이는 개인의 내면 안에 단순히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격체 중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Abrams, 1990; Chopich & Paul, 1990), 우리의 인격 중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에(Capacchione, 1988; Paul, 2013) 내면아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urber(1996)는 '근원적 존재나 마땅히 있어야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낸다고 말한다. 물론, 상담자 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공감적 개입, 긍정적 태도,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 등이 내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노미화, 최연실, 2015). 특히,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례연구를 통해 치료적 공통요인에 연구자의 비판단적, 공감적 태도가 치료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상용, 2022). 이와 관련하여, Rogers(1957)는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상담자의 이론과 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상담사의 치료 요인에 더하여 내면아이치료에 있어서는 상담사가 그냥 '나'로서 내담자의 존재인 '너'를 그 자체로 만나줄 때,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나가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내면아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재양육(Re-parenting)'이 내면아이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상담사의 자기치유경험과 상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스스로 돌보게 된 참여자들은 내면아이치료에 있어서 자신의 결핍과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임

을 깨닫고, 내면아이치료가 내담자의 '자기실현경향성'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한다. 또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면아이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내면아이를 떠올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공감해 주고 금지되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 허락해 주고 끊임없이 돌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내면아이치료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제는(2011)이 내면아이치료에서 말하는 치료의 진정한 의미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에게 내면아이치료가 주는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대할 때, 자신의 내면아이를 인식하면서 만난다는 점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이 가지는 고유한 경험이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의 순간을 보게 될 때, "나의 내면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 아이를 또 보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한다.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 '상처받은 아이(Wounded Child)'로 내담자와 함께 머무르며 함께 울다가 내담자의 치유된 모습에 함께 '놀라운 아이(Wonder Child)'의 모습으로 기뻐하며 웃고 춤추게 된다. 상담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담자 앞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Nouwen, 1999) 상담사와 내담자가 어린아이였던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 상호 순환적으로 자신의 상처치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고유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 점을 바탕으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경험을 임상적 적용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을 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경험과 그것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국내에 배출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임상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구조화한 본 연구는 추후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의 수련과 전문가 배출을 위한 과정을 논의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는 수련 과정에 있어 내면아이치료 기법만을 체득하기보다 상담사가 먼저 내면아이에 대한 자기치유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에게 수련 과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들이 자신의 내면아이를 만날 기회들을 확보하고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 of the therapist)를 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돌봄으로서 '본래의 나'를 찾아 '나됨'을 경험하고 마침내 '놀라운 아이'로 자신을 인식하는 참여자들의 경험은 내면아이치료 상담사로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창조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가지는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사 자신 또한 끝없이 성장해야 하는 한 존재로 보며 상담 현장에서 자신의 내면아이를 지속해서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넷째, 내면아이치료 상담사의 상담 경험은 현재의 내담자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담자를 과거의 상처를 지닌 '내면아이'로 바라보고 머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상담사로서의 태도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여타의 상담 이론 및 기법들이 활용되는 현장에서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러한 상담자로서의 태도는 상담사 자신을

스스로 내담자의 현재 고통과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면아이치료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스스로 치유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내면아이치로 상담사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치료 모델을 다루는 상담사들의 수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5년~10년 이상 상담경력이 많은 내면아이치로 상담전문가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데 집중된 연구이다. 내면아이상담을 처음 시작한 초보 상담사들에 관한 연구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함께 이러한 연차가 다른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상담 장면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특히 내면아이치로 상담사 훈련 경험에 집중된 이야기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구참여자의 7명 중 6명이 여성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 상담전문가들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기대해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들의 치유 경험이 개인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내담자와의 치유와 연결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들이 집단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사례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아이치로 상담사들의 수련 과정에서의 치유 경험이 내담자와의 치유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상담사의 경험에 초점을 둔 심층적인 탐색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 실체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은 드러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련 과

정에서 일어나는 상담사의 치유 경험이 상담사 자신의 발달 과정 및 상담사로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그 과정과 관련 요인들에 초점을 둔 근거이론 접근으로 실제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본 연구 자료를 기초로 내면아이치로 상담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유리, 오제은, 김혜진, 박은아 (2023). 부부가족상담사의 원가족 경험이 상담사 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 슈퍼바이저와의 작업동맹 경험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 **부부가족상담연구**, 4(1), 91-108.
- 김숙경, 정혜은, 김신영, 이주안, 이지영, 정은영, 하영운 (2022). 한국 상담사의 이마고부부치료 적용 경험에 관한 함의적 질적 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3(2), 43-73.
- 김주은 (2020). 마약중독의 근거기반치료. **한국심리학회지**, 39(2), 186-201.
- 노미화, 최연실 (2015). 가족상담사들의 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17-141.
-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2020. 02. 24. <https://news.imaeil.com/EntertainmentsAll/2020022410013569691>
- 문경일, 오태주, 박은아 (2023).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부가족상담연구**, 4(1), 1-22.
- 박상규 (2018). 중독자의 회복유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적 상담모형. **한국심리학회지**, 23(2), 293-326.

- 박영현, 박승민 (2015).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과정 연구 -내면아이치유 집단상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3(1), 239-271.
- 박응식 (2018). **상담센터 인턴상담사의 임상수련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아이 인형 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97-124.
- 박혜리 (2016).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이 고교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8).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차선 (2010).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한국형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자기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지현, 이동천, 권영란 (2015). 내면아이상담을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7(5), 2719-2731.
- 오제는 (2005). 커플 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 관계치료와 내면아이치료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지**, 6(3), 1055-1070.
- 오제는 (2009). 내면아이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 오제는 (2011). 내면아이치료와 목회상담.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11(1), 4-45.
- 오제는 (2013).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워크북**. 서울: 내면아이치료연구소.
- 오제는, 김혜진 (2018). **내면부모자녀체계치료: 동형성-상담사로서의 자기치유와 성장**. 서울: ICFR.
- 유숙경, 이경원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 회복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 혼합연구방법론 접근 -. **한국교정학회**, 30(2), 31-68.
- 윤상용 (2022).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단기상담 질적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3(2), 89-109.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 이동천 (2014). **내면아이와 비폭력대화를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2014). 부부상담사 수련 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81-99.
- 이미정 (2015). '상처입은 치유자'로서의 상담자 발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상담**, 5(1), 39-59.
- 이윤재 (2021). 내면아이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부부가족상담연구**, 2(1), 57-68.
- 이진경, 황경애 (2020).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자기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의 내면아이상담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1(1), 33-48.
- 이호은, 박승민 (2017). 목회자의 상담전공 수련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상담**, 7(1), 1-20.
- 이호은 (2021). 목회자 사모들의 상담전공 수련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상담**, 11(1), 59-79.
- 전은숙, 김혜진 (2022). 가족치료사의 '상담사로서의 자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3(2), 17-42.
- 주보람 (2013).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이 자기개념 및 자아강도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 김주영 (2002). 전문상담자들의 특성과 양성조건: 상담심리전문가들의 자기보고(self-report) 연구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0, 141-159.
- 황경애 (2020). 내면아이상처로 대인관계의 위축감을 갖는 50대 주부를 위한 통합적 상담사례 연구, **한국코칭학회**, 13(1), 91-112.
- Abrams, J. (1990). *Reclaiming the Inner Child*. Los Angeles: Tarcher.
- Borders, L. D. & Usher, C. H. (1992). Post-degree supervision: Existing and preferred practic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594-599.
-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년도에 출판).
- Burber, M (1996). 나와 너[*Ich und Du*]. (표재명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은 1923년도에 출판)
- Capacchione, L. (1988). *Recovery of Your Inner Child: The Highly Acclaimed Method for Liberating Your Inner Self*. NY: Simon & Schuster/ Fireside.
- Chopich, E. J. & Paul, M. (1990). *Healing Your Aloneness: Finding Love and Wholeness Through Your Inner Child*.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 Corey, G. (2010).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The aryan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8<sup>th</sup> Ed.*].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이 근배, 홍영근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원전은 2013년도에 출판).
- Del Casale, F., Munilla, H. L., de Del Casale, L. R., & Fullone, E. (1982). Defective parenting and re-parenting.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12(3), 181-184.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은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 Goodyear, R. K. (2014). Supervision as pedagogy: Attending to its essential instructional and learning processes. *The Clinical Supervisor*, 33(1), 82-99.
- Heimann, P. (1950). On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1, 81-84.
- Hendrix, H. & Hunt, H. L. (2022). 세계 최고의 커플테라피 이마고[*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s, Fully Rivise and Updated Edition*]. (오제은, 김혜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9년에 출판).
- Jung, C. G. (1963). *Only the wounded physician heals: In memory, dreams and reflections*. London: RKP.
- Larson, L. M. & Daniels, J. A.(1998). Revie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y*, 26(2), 178-21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May, R. (1989). *The Art of Counseling*. New York, NY: Gardner(Original Workpublished 1939).
- Miller, A. (2019).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Das Drama Des Begabten*

- Kindes Und Die Suche Nach Dem Wahren Selbst*. (노선정 역). 서울: 양철북.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My modern met (2015). Burning Man Sculpture Reveals Inner Child Glowing within Giant Wire-Framed Adult Bodies. 2015. 9. 16. <https://mymodernmet.com/alexander-milov-love-sculpture/?msclkid=c01a5d66be9f11ecba0df690b458b6f5>.
- Nouwen, H. (1999). 상처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원전은 1972년에 출판).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3.
- Paul, M. (2013).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하기[*Inner Bonding*](정은아 역). 서울: 소울메이트 (원전은 1992년 출판).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ubin, J. (2007).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Language counseling. *System*, 1(35), 1-9.
- Simon, G. M. (2006). The heart of the matter : A proposal for placing the self of the therapist at the center of family therapy research and training. *Family Process*, 45, 331-344.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England: Wiley.
- Turteltaub, J. (Director). (2000). *The Kid* [movie]. Walt Disney Studio Motion Pictures.
- Winnicott, D. W. (1949). Hate in the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0, 69-74.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9월 08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10월 18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10월 23일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Inner Child Therapists' Experience: The Linked Healing Process Between the Therapists and the Client

Yoon Jae Lee                      Jay Oh                      Euna Park                      Young Yoon Ha  
Inner Child Institute    Daybrea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Inner Child Therapists' in counseling relationships with their clients by employing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developed by Giorgi (2004). For this purpose, seven Inner Child Therapist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we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yielded 386 semantic units and 83 central meanings. Meaning structures were determined by 24 sub-components and 8 key components, including 'Discovering a Wounded Inner Child,' 'Caring for a Wounded Inner Child,' 'Meeting a Wonderful Child,' 'Confidence in Healing,' 'Discovering Another Wounded Inner Child,' 'Being with Another Wounded Inner Child,' 'Meeting Another Wonderful Child,' and 'Growing Together.' Finally, with a focus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s were formulated under the theme of the linked healing process. The study discussed the clinical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s, along with highlighting limitations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 : Healing's Experience, Inner Child Therapy, Inner Child Therapist,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Study*

# 상담자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D 대학원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김민하*	배임순**	정정교***	홍성희****
위밍쌤 심리상담연구소	NJ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안양가족센터	한양아이소리 심리상담 하남센터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필요성이 한층 증가된 비대면 화상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경험을 통해 비대면 상담의 경험과 비대면 화상상담의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D 대학원 상담센터에 주목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10회기 이상 진행한 사례를 2사례 이상 가진 상담자 13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CQR)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3개의 영역, 8개 범주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 영역에서는 '가상공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긴장', '우려를 불식시킨 긍정적 경험',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 <비대면 화상상담의 평가> 영역에서는 '시공간 제약의 초월',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한계', '대면 상담과의 차이',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한 제언> 영역에서는 '필요조건', '지원체계 확보'로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상담 방식인 화상상담의 긍정성과 한계를 확인하고, 상담사로서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비대면 화상상담, 상담사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

---

\* 제1저자: 김민하, 위밍쌤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제2저자: 배임순, NJ Famil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소장  
\*\*\* 제3저자: 정정교, 안양가족센터 상담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홍성희 한양아이소리심리상담 하남센터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64 503호/  
E-mail : sunghee@daybreak.edu

## 서론

비대면 화상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서로 얼굴을 보며 이루어지는 온라인 상담의 하나를 의미한다(고성원, 권경인, 2021). 직접 만나는 방식이 아닌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른 공간에서 매체를 통하여 만나고 치료적 개입을 하는 형태에 대해 문헌들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사이버 상담’, ‘비대면 상담’, ‘화상상담’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이동훈, 김주연, 김진주, 2015), 그중에서 화상상담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뿐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담 방식으로 인해 대면 상담과 유사한 면이 있다(임은미, 2006).

온라인 비대면 상담은 대면 상담과 같은 상담 효과를 일정 정도 지속하면서도 영상 매체 등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하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유동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Yuen, Goetter, Herbert, & Forman, 2012). 교통수단의 어려움, 신체적 불편함 등과 같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조건으로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일부 실행은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상담 장면에서도 새로운 환경과 기준이 요구되고, 온라인 상담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예기치 못한 COVID-19 상황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와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제한하는 특수한 현상을 야기시켰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 되고 모든 일상의 제한을 받으면서 재택근무와 자녀들의 가정 학습 시

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원들의 재택 체류 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사 및 육아 부담의 가중과 경제적 위기의 도래, 가족 구성원과 잦은 접촉에 따른 의사소통의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가족 체계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약성이 표면화되었고, 이것이 가정폭력과 이혼 등의 가족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주국희, 2020; 최청락 외, 2020). 또한, 국민의 우울감이 극대화되고 분노 조절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가 2020년 9월 전국 19세~70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 지수가 상반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개인 정신건강의 문제와 가족 내 위기가 증가하여 상담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COVID-19로 인한 거리 두기는 대면 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비대면 상담의 요구는 필연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직통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국내 한국상담학회는 원격화상상담 수련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원격화상 수련을 인정해 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한국상담학회, 2022). 이처럼 국가와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응 행동들은 이제 비대면 상담이 중요한 상담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영역에서도 비대면 상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다. 사이버 상담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이버 화상상담’(남윤희, 2006), ‘온라인 심리치료’(이동훈 외, 2015),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상담’(김채은, 윤용희, 2018), ‘가상현실 상담치료’(김수아, 주종우, 2018), ‘챗

봇상담'(양성철, 2017; 이지원, 양현정, 김지근, 2019), '인공지능상담'(송용섭, 2020)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과 방식들이 상담의 실제 및 연구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비대면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증가되고 있는 것에 비해 내담자들의 온라인 상담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수미 외, 2021). 해외에서는 COVID-19 이전부터 정신 의뢰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을 높이고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심리치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Dowling & Rickwood, 2014).

국내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상담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화상 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집단 상담의 효과로 집단상담원들의 자기 존중감이 증진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정서적 안정감 및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는 보고가 꽤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대곤, 남윤희, 2007). 한편, 비대면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여, 양질의 전문화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담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한 연구가 주목된다(정미라, 이송이, 2021).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주관성 유형을 첫째, 상담 효과성 담보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언급한 상담 환경 우선형, 둘째, 내담자와 상담자를 위해 더 개발되어야 함을 언급한 필요 맞춤 개발형, 셋째, 정보 기술의 편리함을 받아들이는 온라인 효과 수용형, 넷째, 자기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 교육을 탐색하는 대처 교육 탐색형 등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비대면 상담에 대한 유형화된 상담자의 주관성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비대면 상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였다.

COVID-19 이후에는 내담자들의 비대면 상담에 대한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지선, 최지선과 김희경(2021)의

연구에서는 대면 상담에 대한 경험과 비대면 상담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비대면 상담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경험들, 비대면 상담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이해와 비대면 상담으로 반향 되는 대면 상담의 필요성까지 아우르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상담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과 그것이 상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비대면 상담에 대한 내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향후 상담현장이 COVID-19로 인해 가속화된 테크놀로지 중심의 사회 속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어떠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일반대학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상담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들이 생각과 경험을 잘 표현하는 사진과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포토보이스 방법과 SNS 소통 방법을 혼합한 상담을 시행한 사례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곽현주, 고은현, 2020).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포토보이스 기법을 적용한 SNS 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비대면 일상과 학업에 대해 점차 적응하고 긍정적 측면을 평가하였으나, 진로 및 취업에서는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사례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비대면 상담 전략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한편, 사이버 상담의 성과가 대면 상담 못지않은 성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양미진, 유준호, 박성륜, 유혜련, 김경화, 2016),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면 치료보다 편안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밝힌 연구(임성진, 이정은, 한신, 2017) 등이 비대면 상담이 가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온라인 상담 저변 확대와 상담 구조화 방법의 개발, 온라인 상담을 위한 매뉴얼 개발, 그리고 윤리규정의 확립과 교육의 확대 및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유용한 치료기법의 정리와 개발을 강조한 연구(한수미 외,

2021)가 있다. 또한, 비대면 상담에 대한 가족 상담사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대면 상담을 이용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리치료사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아, 김지선, 2020a). 글로벌 시대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비대면 상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상담의 유용성은 익명성, 효율성, 높은 접근성, 즉각적인 개입, 사후 모니터링의 용이성 등이 제시되고 있고, 제한점 및 보완점으로는 비언어적 표현의 제한, 콘텐츠의 질 확보, 취약계층의 비대면 상담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윤리적 이슈에 대한 대비 등이 논의되고 있다(장수미, 정지형, 이희연, 2022).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OVID-19 이전부터 온라인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담, 화상상담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상담사의 경험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상담사의 경험 연구 추세가 화상상담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밝히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향을 고려할 때, 비대면 화상상담을 직접 경험한 상담자의 개인적 경험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 비대면 화상상담의 특성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의 연구팀은 비대면 화상상담을 일정 사례 이상 진행해 온 상담사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특히 COVID-19 이전인 2018년부터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해오면서 비대면 화상상담의 기초 자원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자원을 기초로 비대면 활동 맞춤 수련 방식을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상담을 주 상담 방식으로 채택한 D 대학원 상담센터에 주목하였다. D 대학원 상담센터는 세계 각국의 내담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담자들을 돕는 상담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만을 위한 실습 및 교육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 지속적인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 대학원 상담센터에서 현재 비대면 화상상담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을 선택한 것은 CQR이 귀납적인 방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양상을 숫자가 아닌 언어의 기반을 둔 분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을 실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실제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를 통해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가 처한 맥락에서 개별적인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D 대학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맥락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더불어 팀을 구성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의 상황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팀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CQR의 기본 특성이 잘 부합되었다.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방식의 자료 분석으로 소수의 사례를 심도 있게 탐색하여 비대면 화상상담 현장에 있는 상담사들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상담자의 개인적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상담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탐색한 비대면 화상상담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강력한 현실적 요구에 의해 나아가 비대면 화상상담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더욱 확장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비교적 긴 기간 경험을 축적하여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실제 비대면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상담자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것은 비대면 화상상담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 확립,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의 확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Hill et al., 2005; Hill, 2012/2016)을 적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과정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사고를 촉진해 다양한 답변을 얻어내는 방법을 취한다. 사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개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사례를 깊게 이해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연구팀원 간의 합의를 중요시하고, 윤리적인 문제와 신뢰와 문화의 역할도 강조한다. 우리의 복잡한 세계와 하나의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Hill, 2012/2016).

연구자들은 COVID-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상담 개입도 대면 상담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급속하게 바뀌는 시기를 보내면서 COVID-19 이전부터 비대면 화상상담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D 대학원에서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참여

자들의 경험을 그들 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전체적인 경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D 대학원의 구성원인 내부자로서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4명의 공동 연구자들이 매주 일 회 두 시간씩 총 12회에 걸친 만남을 가졌다. 정기적 만남으로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고 합의적 질적 연구 수행 및 준비를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줄이고 선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판단중지의 시각으로 기존의 문헌 연구과 도서를 토의하고 점검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각각 개인별로 코드화하였고, 다수의 질적 연구 및 합의적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2학기에 걸쳐 수업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연구절차는 Hill이 제시한 4단계 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Hill, 2012/2016). 시작 단계에서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하였고,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 문제와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주제가 되는 경험의 적절성을 가진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팀이 개발한 질문지를 기초로 면담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영역을 개발하고, 자료들을 개발된 영역에 할당하여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교차분석 단계로 각 영역 내의 사례들을 범주화하면서 빈도를 산출하였고, 이후 감수자의 감수 과정을 거쳐 자료들의 의미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역을 재개발하고 범주와 하위범주를 재구성하는 교차분석 단계를 다시 거쳤고, 이를 재감수 받는 과정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단계를 통해 결과 빈도분석을 언어화한

표를 구성하고 참여자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연구팀 전체의 지속적인 합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합의와 감수를 통한 의견 제시로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분석을 반복하고 이를 재합의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상담자의 비대면 화상상담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들은 D 대학 대학원생으로 부설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사들이다. D 대학원 재학생들은 COVID-19 이전부터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자격	상담경력
참여자1	여	40대	한국	박사과정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부부상담사 1급 가족상담사 2급 내면아이상담사 2급	2.5
참여자2	여	50대	한국	박사과정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부부상담사 2급	3
참여자3	여	40대	한국	박사과정	상담심리전문가 1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성폭력상담사	5
참여자4	여	50대	한국	박사과정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10
참여자5	여	60대	한국	박사과정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전문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1급 부부상담사 1급	10
참여자6	여	40대	한국	석사과정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기독교상담사	8
참여자7	여	50대	한국	박사과정	부부상담사 1급	11
참여자8	여	50대	미국	박사과정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부부상담사 2급	2.5
참여자9	여	50대	한국	박사과정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2급 부부상담사 2급	8
참여자10	여	50대	한국	박사과정	가족상담사 2급	3
참여자11	여	60대	미국	박사과정	부부상담사 2급	1.5
참여자12	여	60대	한국	박사과정	전문상담사 2급	4
참여자13	여	60대	기타	박사과정	부부상담사 2급 내면아이상담사 2급	6

수업을 받아왔고, 수업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을 위한 교육을 받아 부설 상담센터에서 임상 실습을 해오고 있다. 경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는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대면 상담 경험도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생생한 경험을 위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상상담을 경험하였고, 화상상담의 속성과 본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10회기 이상의 완결 사례를 최소 2사례 이상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참여 의사를 물어 동의한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정보와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준수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팀은 비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 상담사의 상담 경험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연구자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와 관련된 각자의 질문들을 통합하여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1차 구성된 질문지로 모의 면담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질문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감수자 1인에게 피드백을 받고 이에 대한 연구팀의 논의와 재협의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질문지는 기본 핵심질문과 그 이후 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질문들로 구성하였고, 기본 핵심질문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면담 전 참여자들에게 면담 녹음과 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22년 7월부터 9월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수업을 2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지도교수와 함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모의 면담과 분석에 대한 스터디와 훈련을 받아 질적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연구 전 각자의 편견과 기대 목록을 작성하여 서로 검토하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선이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적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에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안내한 후,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과 연구 후 자료는 폐기할 것에 대해 고지하였다.

## 표 2. 심층면담을 위한 기본질문

---

1.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주관적(개인적)경험

: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비대면 (화상)상담이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2.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과정/ 구조화) 관련 경험

: 비대면 (화상)상담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3. DBU 비대면 (화상)상담 과정의 특징 - 여타 화상상담 경험과의 비교

: DBU 비대면 (화상)상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4.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이 상담사 자신에게 미친 영향

: 비대면 (화상)상담을 경험하시고 난 후에 그것이 선생님께 미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비대면일 경우 녹화, 대면인 경우 녹음한 자료를 면담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기록하여 면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기록하였고, 면담 이후 면담 경험에 대한 현장 노트를 추가하였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추가 탐색이 필요한 부분은 이메일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다. 면담 이후 연구팀은 면담 경험을 나누었고, 축어록을 작성하여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며 질문지 및 면담 과정의 보완을 다음 면담으로 이어가는 나선형 과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Hill(2012/2016)이 제시한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4명의 연구자들은 상담학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모두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이 있으며,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수업을 담당하며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연구의 전 과정을 감수 받았다. 분석과정은 편견과 기대에 대한 자기점검과 이해, 영역개발, 자료 코딩, 핵심 개념 구성, 교차분석을 통한 범주 개발, 표본 범주 도출 등으로 진행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평정 과정은 일차적으로 모두 모여 합의된 평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하위 팀별로 나누어 자료를 코딩한 뒤, 팀별로 자료를 교환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 전체 팀이 함께 모여 그 결과를 합의하였다. 교차분석으로 핵심개념을 도출한 이후, 감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중복되거나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연구팀은 이를 수용하여 다시 원 축어록으로 들어가 영역의 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합의와 감수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관계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역(domain)개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연구자들이 3명씩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한 연구자가 축어록을 정리하였다. 연구팀은 먼저 진행된 두 사례의 축어록을 함께 읽고, 개발한 질문지와 비교하면서 영역 목록을 함께 만들었다. 이후 영역에 따라 의미 단위별 핵심개념을 정리하는 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구자들이 자신이 담당한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읽고 영역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 중 연구자들을 영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기 위해 원자료로 돌아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서로에게 공유하고, 이를 검토하고 합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들은 기호로 처리하였고, 연구팀만 볼 수 있는 보안 처리된 공동 드라이브에 올려 함께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문이 가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 논의를 거쳐 일치하도록 조율하였다. 일차 연구팀이 도출한 결과에는 4개 영역이 개발되었으나 이후 감수 과정에서 중복되는 영역과 의미 반영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다시 영역을 개발하는 과정을 압축하여 진행하고 최종 3개 영역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평가',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한 제언'으로 합의되었다.

### 핵심개념(core idea) 구성

핵심개념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가자의 이야기에서 핵심을 포착하여 적은 개수의 단어로 이를 요약하는 작업(Hill, 2012/2016)이다. 연구자들은 훈련을 통해 기본 원리를 배운 뒤, 각자

개별사례에 대한 핵심개념을 요약하는 작업을 거쳐 이를 전체적으로 함께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기대와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자료에 최대한 가깝도록, 연구자들이 가정하거나 의도를 추론하거나 특수한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서로를 도왔다. 또한, 핵심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참여자의 경험이 형성되고 자료가 수집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료수집 과정과 이후에 작성한 현장 노트와 연구자의 메모를 참조하였다.

#### 교차분석(cross-analysis)

교차분석은 합의된 영역에 따라 요약된 핵심개념들에서 공통된 주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Hill, 2012/2016). 각 사례에서 유사한 핵심개념을 묶어 범주 구조를 만들고 세 팀으로 나누어 핵심개념을 범주에 배치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 서로 바꾸어 그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전체 모임에서 의견을 공유, 합의하였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검토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후 각 영역의 핵심개념을 묶어 범주를 정하였고, 범주를 요약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었다. 제목은 자료의 자체에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Hill, 2012/2016)에 따라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범주에 맞는 제목을 찾고자 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식에 따라 교차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로 도출한 범주화된 자료는 개별 범주가 전체 사례 중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언어화된 빈도표로 정리하였다. 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이 빈도표에서 각 빈도는 Hill(2012/2016)이 제안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해당 범주가 모든 참가자나 1명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에서 나온 경우 '일반적(general)'으로, 절반 이상인 7명 이상인 경우 '전형적(typical)'으로, 적어도 2명 이상 6명인 경우 '변동적(variant)'으로 표기하였다. '드문(rare)'에 해당하는 1명에서 발견된 빈도의 경우는 결과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 감수

합의적 질적 연구(CQR)의 감수 혹은 자문은 연구팀의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질을 희망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Hill, 2012/2016). 따라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문을 두어 '연구팀을 위한 확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팀 자체적으로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검토하고 수정작업을 하지만, 자문을 통해 그 과정의 밖에 있는 사람의 신선한 관점으로 연구팀의 집단 사고의 잠재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Hill, 2012/2016). 본 연구팀은 영역개발과 핵심개념 구성, 교차분석과정에서 팀을 나누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서로 검토하고 수정을 제안하는 것을 통해 내부 감수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다수의 질적 연구 및 합의적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가 연구 과정과 독립된 위치를 유지하면서 도출된 결과들을 재검토하고 연구팀의 연구 활동에 대해 제안하는 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감수자는 연구팀이 도출한 영역개발에서 중복 영역에 대한 수정 부분을 제안하였고, 그 수정한 영역이 원자료를 잘 반영하였는지와 핵심개념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수정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감수 과정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가 가치를 두고 있는 힘의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연구팀은 감수자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결 과

비대면 화상상담을 경험한 상담사 13명의 경험을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평가',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한 제언'이 그

표 3. 영역 및 범주 분석 결과

영역	범주	하위범주	사례빈도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	가상공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긴장	별도로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부담	전형적(9)	
		적극적 접촉과 개입의 제한	전형적(8)	
		내담자의 안전, 돌발 상황 대처 걱정	전형적(8)	
		정서적 연결의 한계	전형적(7)	
	우려를 불식시킨 긍정적 경험	다양한 상담 가능성에 대한 놀라움	일반적(13)	
		영상 화면을 넘어 전해져오는 에너지	전형적(8)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라포 형성	전형적(7)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	상담 활용의 옵션이 다양하게 확장	일반적(12)	
		상담의 핵심 요인은 동일함을 배움	전형적(9)	
		상담자로서 자신감 증가 실생활로 이어지는 영향	전형적(9) 변동적(6)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평가	시공간 제약의 초월	코비드 상황에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	일반적(12)	
		상담자에게도 내담자에게도 훨씬 넓어진 선택의 폭	전형적(11)	
		내담자에게 편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상담자가 입장	전형적(9)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한계	화면 안에 비춰진 것만으로 얻어지는 정보	일반적(12)	
		인터넷 연결 불안과 같은 환경 변수 영향 깊은 접촉의 미묘한 장벽	전형적(9) 전형적(8)	
	대면 상담과의 차이	화상상담을 접하는 내담자의 의지와 협조	일반적(12)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기술과 역할	전형적(10)	
		대면 상담과 다르지 않은 상담 과정과 효과 상담자 자신에 대한 관찰과 피드백 가능	전형적(8) 변동적(4)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한 제한	필요조건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일반적(13)
			정보 보호와 윤리절차	전형적(11)
내담자에게 제공할 구체적 가이드라인 보완적 소통 방식의 확보			전형적(10) 전형적(8)	
지원체계 확보		지속적인 수퍼비전	일반적(13)	
		개선된 플랫폼의 개발	변동적(4)	
		비대면 상담 맞춤 상담자 훈련	변동적(3)	

\* 일반적: 모든 참여자, 또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로 구성된 범주/ 전형적: 절반 이상인 6명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된 범주/ 변동적: 최소 2명 이상의 참여자부터 5명에 해당하는 참여자로 구성된 범주

것이다. 영역별 범주와 하위범주, 사례빈도를 정리 하여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 영역1 : 비대면 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

참여자들의 비대면 화상상담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3개의 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을 시

작하면서 가상공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긴장된 마음이 있었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 긍정적 경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상담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참여자 개인의 실생활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낯선 비대면 화상상담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놀라기도 했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으며, 대면 상담과 차이는 있었으나 상담의 본질은 다르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가상공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긴장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사 혼자 별도로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부담(전형적)이 많았고, 서로 다른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환경에서 내담자에게 적극적인 개입과 접촉에 제한이 있었다(전형적)고 언급하였다. 비대면 화상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이 염려되었고, 그럴 때 상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까 봐 걱정 되었으며(전형적), 이러한 염려와 긴장은 내담자와의 정서적 연결에서도 한계로 경험 되었다(전형적).

**줌 접속에서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저쪽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게 부정적인 경험이죠.** 기계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스피커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될 때 노트북이 잘 되다가 내담자도 저도 역시 이번 주도 그냥 켜지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해. 저쪽도 나도 기계치인데 뭐가 대처를 못 하겠는 거야. (중략) 그런 게 좀 부정적인 경험인데. 이 기기상의 접속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돌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참여자 9, 별도로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부담)

**실제로 환영해 줄 수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여성분들을 많이 상담했는데 그러면 좀 안아줄 수도 있고 한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내면아이 작업을 할 때도 같이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걸 할 수 없이 그분은 혼자 자기의 공간에서 해야 하니까 (참여자 1, 적극적 접촉과 개입의 제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발 행동이죠.**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이성 내담자가 있는데 갑자기 옷을 벗는다든지, 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닌 내담자하고 상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뭔가 좀 구조화라든지 안전한 안내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들은 거는 그냥 자살사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참여자 9, 내담자의 안전, 돌발 상황 대처 걱정)

**아쉬움으로 남는 거는 아무래도 내담자가 약간 라포 형성이 안 된다거나 조금 불편해하실 때,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아무래도 화면에 있으니까 이분이 100% 불편해하는 거를 100%로 내가 느끼지는 못하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참여자 8, 정서적 연결의 한계)

우려를 불식시킨 긍정적 경험

한편, 비대면 화상상담을 경험한 상담사로서의 개인적 경험에는 우려도 있었으나, 긍정적인 경험 또한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의 다양한 상담 가능성에 대해 놀라웠고(일반적), 영상 화면을 넘어 전해져 오는 연결감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전형적), 비대면 화상상담으로도 내담자와 함께 충분히 가능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진 경험을 이야기하였다(전형적).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만나기가 힘든데 줌으로 만나다 보니까 진짜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분들하고 화면으로 눈을 마주하는 게 또 놀랍기도 했고, 화면으로 보면서 교감이 일어나서 눈물 흘리시고 하는 것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중략) 제가 시스템이 갖춰진 센터에서 상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크게 화면으로만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달라진 점은 일단 내면아이 상담이나 어떤 그런 **상담들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 그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고, 세계 어디서든 사람이 살려고 하는 길을 만들 수 있고, 길이 지금 뚫리고 있는 거구나. (참여자 11, 다양한 상담 가능성에 대한 놀라움)

내담자하고 굉장히 연결감을 느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상담했거든요. 거기서도 **직접 대면하지**

는 **않았지만, 굉장히 친근하고 서로의 연결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차이는, 줌이거나 대면이거나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나 어떤 상담 목표에 따라서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래도 연결감이 대면하고 비대면 하고의 어떤 기대는 특별히 나누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략)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내담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연결감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도 대면 못지않다는 걸 느꼈고 (참여자 13, 영상 화면을 넘어 전해져오는 에너지)

**줌 이기는 하지만, 치료사의 에너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참여자 7, 영상 화면을 넘어 전해져오는 에너지)

**라포 형성이 잘 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모든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나 장소나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라포 형성에서도 다른 바가 없고 (중략) 잘못 얘기하면 제가 저를 유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저한테 온 내담자들이 라포 형성이 다 잘 되었어요. 오셔서 그분들하고 딱 집중이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상담하고 다를 바 없이 상담 진행이 너무 잘 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인 남자분 상담할 때 그분이 처음에 볼 때 화면을 어둡게 하고, 자기를 잘 안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라포 형성이 되고 나니까 환하게 다 보여주고 (참여자 5,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라포 형성)

####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상담 전문가로서의 성장도 경험하였다. 대면 상담으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상담 기법이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였고, 오히려 내담자 가정의 환경적 요소를 활용하여 상담 활용의 옵션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다(일반적).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대면 화상상담과 대면 상담의 구조가 다를 뿐, 상담의 핵

심 요인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전형적), 이러한 깨달음으로 상담사로서 자신감이 증가하는 경험과 함께(전형적), 참여자 삶에서 실생활로 이어져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는 영향력이 있었다(변동적)고 한다.

**우선은 자료를 좀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지금 컴퓨터에 있는 영상 자료라든지 그걸 바로 쉐어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하면은 컴퓨터로 음악을 바로 틀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물론 대면으로 해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매체들을 좀 쉐어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부 상담을 했을 때는 이마고 대화법을 했었던요. 그래서 그곳에 ppt를 공유해서 이마고 대화법은 이렇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고, 또 약간의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 쉐어 해주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말로만 전달할 때 보다는 매체를 활용했을 때 더 효과가 조금 더 전달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상담 활용의 옵션이 다양하게 확장)

이렇게 라포 형성이 잘 돼 가면은 전혀 이 사람을 비대면으로 만났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까이에서 다 감정이 느껴지고 서로가 전달되고, 전혀 의식을 못 하게 됐어요. (중략) **이렇게 잘 연결되면 저한테도 좀 만족감이 오고, 이 사람이 화상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나 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화상인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게 화상이었나? 이런 걸 전혀 감지할 못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내담자로 대면하고 느꼈던 좋은 경험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13, 상담의 핵심 요인은 동일함을 배움)

내담자들이 좋아해 주고 성장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전문성도 좋아지는 거 같아요. 일단 자신감이 좀 생겨났죠. 예전에는 언제든지 상담실에 있어야지만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로서 언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중략)  
저는 너무 좋았죠, 제가 내담자를 두려워할 때 수퍼비전을 받으면 또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참여자 4, 상담사로서 자신감 증가)

화상상담을 했을 때 내담자를 이해하는 이해도와 저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히 정말 모든 인턴으로 시작해서 상담의 효과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성장했으니까 **제가 성장한 것은 가족들이 알잖아요, 측근이나 같이 사는 사람은 알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없고 그랬던 저에게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당신은 정말 상담이랑 너무 잘 어울려. 상담하기를 잘했어.'인데 저에게 없었던 부분인 거예요. 대면 상담만 했으면 어쩌면 좀 시간이 달레이 돼서 조금 늦게 서야 발견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를 보면서 화상상담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서히 조금씩 발견하고 말에 속도라든지 상대방이 바라는 거를 듣고 경청하는 속도라든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참여자 2, 실생활로 이어지는 영향)

## 영역2 : 비대면 상담에 대한 평가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대면 화상상담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경험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는 아쉬움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화상상담과 대면 상담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범주와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각각 3개씩과 4개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과 함께 물리적인 환경에서 오는 연결감의 제한 등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었다.

### 시공간 제약의 초월

우리는 얼마 전까지 COVID-19 라는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를 보내면서 상담뿐 아니라, 모든 대면이 중단되었고, 여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나 도움받을 방법을 몰라 헤매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COVID-19 상황에서도 상담사와 내담자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상담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일반적). 비대면 화상상담은 상담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훨씬 넓은 선택의 폭과(전형적)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편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상담사가 입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전형적).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 두 아이가 되는 거예요. 비대면은 흑여 좀 숨기기도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을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 두 아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담자가 더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조금 마음을 빼긴다든지 이렇지 않고, 물론 상담을 하실 때 보통 대면을 하더라도 내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급방 1회기 안에서도 신뢰 형성이 되고, 또 내면아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중략) 근데 어쨌든 **아이컨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기는 한 것 같아요.** (참여자 10, 코비드 상황에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

화상상담을 하고 나서 드는 느낌은 **내가 다양화된 느낌이라고나 할까? 폭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화상상담도 가능하구나. 이걸로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상담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훨씬 넓은 선택의 폭)

회사에 다니던 그분은 집에서 안 했어요. **사무실 근처 공간에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상담에 입할 수 있었고** (참여자 9, 상담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훨씬 넓은 선택의 폭)

비대면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할 경우에, 마음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면에서는 눈을 잘 못 마주치잖아요. 근데 비대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좋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 그분들이 직접 또 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여자 12, 내담자에게 편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상담자가 입장)

####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한계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비대면이라는 구조에서의 아쉬움도 있었다. 화면 안에 비춰진 것만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살피기 힘들었고(일반적), 비대면 화상상담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연결의 불안과 상담 환경 변수에 대해 긴장된 마음이 있었으며(전형적), 내담자와의 깊은 접촉에서 미묘한 장벽을 느끼기도 하였다(전형적).

우려됐던 것보다는요 우선은 선생남도 상반신만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보이고 싶은 부분까지만 보이는 거죠. 제가 요청하더라도 받은 보여줄 수 없는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싸이즈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라든가. 그러니까 발을 뺄고 있다든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화상상담을 할 때는 오로지 이 상반신에서 표현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한점이 있죠.** 그냥 거기만으로 저는 한정을 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상담에 임하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보고 상담을 하자. 그랬을 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미술 상담이면 제가 좀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내

담자를 만나서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제한점이 있어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10, 화면 안에 비춰진 것만으로 얻어지는 정보)

어떨 때는 통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 좀 끊기잖아요. 그럴 때 내담자가 잠깐 멈추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캐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구 사용 같은 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데 그런 거가 전혀 캐치가 안 되잖아요.** 바닥에 두고 하니까. 그래서 도구 사용이 좀 어려운 것? 근데 방에서 해도 방음이 안 돼서 내담자는 되게 예민해 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혹시 들을까 봐 되게 조심하고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그럴 때, 정말 진짜 초집중을 해서 딱 그 핵심을 들어갈 때 그 순간들이 되게 방해가 많이 돼요. (참여자 6, 인터넷 연결 불안과 같은 환경 변수 영향)

대면일 때는 제가 커플 상담을 하려고 무릎 바로 앞에 딱 앉으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둘이 그러고 있는 게 사실 정말 잘 느껴지니까 오히려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Zoom에서는 두 명을 비추려다 보니까 되게 멀리 가게 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중략) 그게 좀 되게 힘들었어요.** 제 녹화본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상담은, 녹화본을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신경을 엄청 곤두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 상담할 때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훌쩍훌쩍 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로록 눈물이 흐르는 게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깊은 접촉의 미묘한 장벽)

대면에서는 존재를 더 깊이 딱 만나는 그 공간에서 주는 게 있다면, Zoom에서는 약간 있으나 아닌 듯한 뭔가 접촉했는데 아닌 것 같은 그런 미묘한

**느낌들이 줌 있다는 거** (중략) 안쓰러우면 가서 툭툭 쳐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참여자 3, 깊은 접촉의 미묘한 장벽)

#### 대면 상담과의 차이

비대면 화상상담은 상담사뿐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담에 입장하고,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등 화상상담을 접하는 내담자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일반적). 모두에게 낯선 비대면 화상상담은 대면 상담에 익숙한 상담사에게도 새롭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술과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전형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상담의 본질적인 면에서 비대면 화상상담도 대면 상담과 다르지 않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전형적), 무엇보다 화면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모습이 함께 비추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대면 상담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비대면 화상상담만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상담자 자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변동적).

최선을 다해서 한 그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느꼈다고 해야 하나? 물론 그분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 한 거지만 막상 시작할 때 되게 저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노력하며 막 컴퓨터 조작을 해야 하는 불편감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줌에 들어서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 (참여자 6, 화상상담을 접하는 내담자의 의지와 협조)

**내담자를 연민과 호기심의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로 앉아있는가. 대면 상담에서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상담에서는 화면으로 보이는

것 말고는 제가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의 편안함 같은 게 없으니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 화상상담을 접하는 내담자의 의지와 협조)

화상상담만의 구조화가 또 있네요. 보니까. "화면 안으로 잠깐 더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대면 상담에서는 잘 없는 새로운 구조 형식이네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화면에서 얼굴이 많이 벗어나는 경우를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선생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화면 줌 조정해 주시겠어요?"라고 제가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요"라고 그분이 그러면 저도 내담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시선을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를 노출하는 만큼 나도 느낌이 비슷하게** (참여자 5,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추가 기술과 역할)

이미 라포가 형성된 데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에 라포 형성은 잘 돼야 한다는 제 관점에서는 상담 초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이미 라포가 형성될 때는 결과적으로 상담 효과성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편리성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요.** 어떤 효과성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화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긍정적인 게 많다고 지금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13, 대면 상담과 다르지 않은 상담 과정과 효과)

긍정적인 욕구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내담자의 표정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요. (중략) 내담자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눈빛과 그 말을 제가 따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화면이 주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담자의 눈빛 나의 눈빛

이것이 화면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하면서 이때 내가 살짝 딴 곳으로 갔어서 살짝 내담자의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내가 지지하지 않고 받쳐주지 못했고,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확인을 했을 때 저의 속도가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그냥 다 허공에 나르듯이 버려졌던 것들이, 아주 미묘하고 디테일하게 화상상담을 하면서 저를 분석하게 된 거예요. 제 자신을 알게 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5배 이상? (참여자 2, 상담사 자신에 대한 관찰과 피드백 가능)

### 영역3 : 비대면 상담 운영을 위한 제언

비대면 화상상담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상담을 혼자 운영하면서 알아차리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범주와 6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에 맞춘 구조화된 시스템과 윤리의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소통방식의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 화상상담을 꾸준히 운영하기 위한 상담사 훈련과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 필요조건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시스템의 개발(일반적), 컴퓨터를 활용한 상담 환경에서의 더욱 민감한 윤리의식과(전형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형적).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COVID-19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화상상담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전형적).

일단 타 기관하고 실제적인 상담을 했다가보다는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것과 dbu 상담 경험을 비교하자면 dbu 상담이 훨씬 체계적이죠. 뭔가

어떤 갖춰진 것들을 만들어주시니까. 벌써 안내 홍보를 다 해 주신 상태이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동의를 받아주신 상태이고 그래서 앞에 해야 하는 작업의 시간을 훨씬 줄여주고 그리고 상담을 한 다음에 기록일지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양식이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시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고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슈퍼비전 시간이 아니어도 시급한 거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굉장히 성심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심각한 것을 오래 안고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런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혼자서 상담 일을 했다면 일일이 동의서부터 모든 걸 만들어내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슈퍼비전을 받으려면 굉장히 고가였을 거니까 건 건마다 받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제 감정선에서 그게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고 그런데 괜찮았죠. (참여자 11,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비밀 유지**는 첫 회기에 저희가 안내가 쪽 나와요. 안내하는 내용 안에서 비밀 유지 건에 대해서 녹화를 할 것이고 녹화는 상담을 돕기 위한 슈퍼비전으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폐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녹화를 하지 않고 화상상담을 할 수 있다고 두 가지를 제안 드려요. (참여자 2 정보 보호와 윤리절차)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이 해오던 맥락에서 다뤄야 하는데 줄에서 늦게 들어오거나 시간이 줄거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00님의 시간이예요. 10시에 바로 11시까지 또 다른 분 상담이 예약돼 있어서 좀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10분 20분 늦게 들어오면 어떤 부분을 다룰 때 충분하지 않고 좀 모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시간 안내를 했어요. (참여자 5, 내담자에게 제공할 구체적 가이드라인)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부분들도 안내가 처음에는 잘 안됐고 (중략) 근데 우선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불편하죠. 솔직히 출근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10시부터 9시다 그러면 딱 그 안에는 다 연락이 되고 빨리 중간 체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거기 계신 분들 다 인턴이고 일을 딱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지 **실은 그 중간 체계가 없으니까 더 느려지고 좀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파일이 처음에 11번으로 왔다가 나중에 12로 막 바뀌어 있고 나중에 다 얘기를 해서 고치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쳐야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불편함은 있죠**. (참여자 6, 보완적 소통방식의 확보)

#### 지원체계 확보

참여자들은 새로운 구조의 비대면 화상상담을 혼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슈퍼비전임을 이야기하였고(일반적), 앞으로 비대면 화상상담의 발전을 위해 개선된 플랫폼의 개발과(변동적), 비대면 화상상담에 맞춘 상담사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변동적).

학교 상담에서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슈퍼바이저가 있긴 하지만, 또 저희 인턴 선생님하고 슈퍼비전 안에서 말고 일대일로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가 있으세요(수련슈퍼바이저). 매칭되어서 일대일로 하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인데 저는 인턴심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슈퍼바이저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랬을 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하거든요**. (참여자 7, 지속적인 슈퍼비전)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사로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상담사로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해서 **치유와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던 시간이었어요**. (참여자 10, 지속적인 슈퍼비전)

시스템에서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그 내에 서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가 서로 연결이 잘 될**

**수 있다면** 이때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능기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부를 받아서라도 플랫폼 같은 게 발달하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참여자 3, 개선된 플랫폼의 개발)

만약에 화상에서 뭔가 **구조화**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냐 물어보시길래 지금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설정이나 대처나 그런 교육이나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자살 충동이나 우울한 환자나 그런 것만 교육받았는데, 그런 거 말고 또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담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물건을 집어 던진단든지 막 소리를 지른단든지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9, 비대면 상담 맞춤 상담사 훈련)

## 논 의

본 연구는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상담사들의 개인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비대면 화상상담의 특징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합의적 질적 연구(CQR)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3개의 영역, 8개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연구 결과, 첫째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개인적 경험> 영역으로는 '가상공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긴장'의 부정적 경험과 '우려를 불식시킨 긍정적 경험'이 있었으며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로 나타났다. 둘째 <비대면 화상상담의 평가> 영역에서 '시공간 제약의 초월'의 긍정적 요인과 함께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한계'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새로운 구조의 상담을 경험하면서 '대면 상담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셋째 영역인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한 제언>에서는 '필요조건', '지원체계 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사들이 경험한 화상상담에 관한 이야기로 비대면 상담현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이 경험한 한계로 새로운 인터넷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기계 활용에서 오는 걱정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서 내담자가 상담 중 호흡곤란이 오거나 쓰러져 위험할 경우, 혹은 갑자기 옷을 벗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돌발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상담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불안과 걱정이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상황에서 갑자기 비대면 화상상담을 시작하는 상담사들에게 긴장을 주었을 화상상담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화상상담에 대한 불안', '빈약한 작업동맹', '통제되지 않는 상황', '정서적 개입의 어려움', '기계사용에 따른 불편감' 등의 연구 결과(서미아, 김지선, 2020a)와 같다.

반면 참여자 대부분이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비대면이라는 구조가 대면 상담에 비해 더욱 다양한 내담자를 만날 기회가 되었다. 비대면 화상상담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직접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내담자들, 특히 청소년과(양미진 외, 2016) 타인의 시선이나 심리치료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치료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연구 결과(이동훈 외, 2015)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다양한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상담 가능성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언급하였다. 또한, 내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지는 않지만, 화면을 넘어 서로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순간 비대면 화상상담의 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비대면이라도 영상 화면을 넘어 전해오는 에너지를 통해 내담자와 충분한 라포 형성이 가능하였으며, 내담자와 다른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참여자의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가 경험한 또 다른 비대면 화상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상담 기법 활용의 가능성과 확장이었다. 내담자의 공간에서 가족 개입이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수월하게 상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커플과 부부가 따로 약속을 정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부부 가족 상담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활용하여 더 직접적으로 내담자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서 바로 찾아 공유하는 등의 비대면 화상상담이어서 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또한, COVID-19 상황이었지만 상담사와 내담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담과정에서 안전하게 자기감정에 충실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화상상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다양한 상담 경험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비대면 화상상담이 대면 상담과 구조적인 차이는 있으나, 결국 상담사와 내담자의 에너지가 깊이 연결되고, 한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구조만 다를 뿐 상담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에서의 알아차림은 상담사로서의 자신감 증가로 확장되고 그 누구보다 참여자들이 먼저 비대면 화상상담의 효용성을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이 끝났지만, 자신의 삶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의 효과가 이어져 성장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의 자신감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성장 경험뿐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삶과 가족,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평가'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다. 상담사와 내담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자유롭게 상담을 선택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상담은 어렵고 불편했다고 한다. COVID-19로 인한 거리 두기

상황에서 대면 상담은 어려웠으나 그에 비해 비대면 화상상담은 안전한 상담 구조로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등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해 한시적 수련을 인정했고, 서울여자대학교 가족상담연구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기관에서 비대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박유선, 2021), 마스크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상담이 가능하였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사가 외출하지 않고 서로의 공간에서 조금 더 편안한 복장으로 만날 수 있거나, 직장사무실에서 바로 상담으로 이어지는 등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가정주부의 경우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조금 더 여유롭게 상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내담자의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화상상담의 특성으로 내담자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담자 공간의 특성 및 분위기, 내담자 가족과 동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관계의 알아차림 등 내담자의 공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참여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물리적 거리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경험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면 상담과 달리 비대면 화상상담은 화면 안에 비춰진 정보만으로는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김은하, 이은실, 조예지(2021)의 비대면 심리상담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교감의 어려움'에 대해 응답이 많았던 범주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한계'로서, 비대면 화상상담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인 미세한 감정의 흐름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정미, 한혜원(2021)은 대면 상담에서의 비언어적 표현들은 학생들이 말하지 못하는 정서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했지만, 비대면 화상상담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비언어적 신호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또한,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담사가 직접 휴지를 건네줄 수 없거나,

내담자를 위로하고 싶어도 직접 토닥이거나 안아줄 수 없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서적 연결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담자의 변화 및 성장 과정에서 상담사가 함께 기뻐하며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줄 수 없는 것처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깊은 접촉에 미묘한 장벽을 느꼈다고 하였다.

비대면 화상상담을 경험한 참여자 중 몇몇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내담자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비대면 화상상담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다양한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내담자가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면도 있다. 이는 상담사 또한 마찬가지로 비대면 화상상담을 준비하고 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담사의 기술과 역할이 있어야 하겠다. 대면과 비교해 비대면 화상상담은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라포가 더디게 형성된다고 하였으며(서미아, 김지선, 2020b), 김은하 외(2021)의 연구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주위를 더 기울임으로써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비대면 화상상담에서는 제한적으로 화면에 비친 내담자의 표정과 목소리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써 내담자의 모습과 태도에 더욱 집중하고 경청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선훈, 이지혜(2020)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웹캠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서로 만나는 구조는, 상담 관계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어떤 개념과 기대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온라인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경험과 인식 조사연구에 의하면 비대면 화상상담의 편리함으로 참여자들이 상담을 '가볍게' 대하거나 변화의 낮은 동기를 보인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상담실처럼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 인터넷 끊김과 속도

느려짐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담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자기개방, 자기성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한수미 외, 2021), 비대면 화상상담을 준비하는 상담자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겠다.

비대면 화상상담에서의 연결은 가상공간이지만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바탕으로 치료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치료적 실재감(therapeutic presence)'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치료적 실재감이란, 치료의 수행과 기술을 최적화하는, 내담자와 함께 있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담자가 신체, 정서, 인지, 관계 등의 다층적 수준에서 내담자와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화상상담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신체, 정서적 연결감이 떨어질 때는, 치료적 실재감이 온전히 작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Geller, 2013),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치료적 실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수정, 변유나, 장현진, 이기세, 연구진, 2022).

참여자たちが 말한 또 다른 비대면 화상상담의 긍정적 경험으로는 대면 상담과 다르지 않은 상담과정과 효과성이다. 화면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이루어지는 라포 형성과 영상 넘어 서로의 에너지가 연결되고 내담자의 성장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반영하는 과정은 상담 구조만 다를 뿐 비대면 화상상담에서도 상담의 효과성은 동일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양미진 외(2016)의 연구에서 비대면 화상상담도 대면 상담 못지않은 성과가 있음이 보고되었고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내담자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면 상담보다 편안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임성진, 이정은, 한신, 2017). 비대면 화상상담 또한, 대면 상담과 다르지 않은 상담과정과 효과가 있었으며(Berryhill et al., 2019; Simpson, 2009; Yuen, et al., 2012), 비대면 화상상담이 치료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는 기존 인식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화상상담이 대면 상담과 다르지 않은 효과가 있음을 경험한 상담자들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이수정 외, 2022)가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얼굴이 화면에 함께 나오는 비대면 화상상담의 구조는 기존 대면 상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으로, 화면 영상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내담자의 미세한 변화를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상상담을 녹화하여 다시 보는 사후 모니터링 기능은 상담사로서 자신감의 증가와 함께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이 비대면 화상상담의 익명성, 효율성, 높은 접근성, 즉각적인 개입, 사후 모니터링의 용이성 등의 유용함(장수미, 정지형, 이희연, 2022)을 긍정적으로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상담 운영을 위한 제언'으로 체계적 구조화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대면 상담 시스템의 경우 상담이 취소되거나 급한 연락을 해야 할 때, 상담 신청 및 연결과정에서 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비대면 화상상담에서는 그런 구조화된 시스템의 부족으로 혼란을 경험하였다. 한수미 외(2021)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담의 구조화에 관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 상담 유형에서 사전접수 및 치료 계약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온라인 상담 진행 매뉴얼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매뉴얼에는 초기 면담, 구조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 윤리적 민감성을 더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비밀보장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상담 진행에서 높은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수정 외, 2022). D 대

학원 인턴십 교육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상담사가 화상상담을 시작함과 동시에 내담자에게 현재 있는 장소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그곳의 주소를 받아 적도록 교육받고 있다. 화상상담에서 컴퓨터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상담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상담 장면을 녹화하는 등 내담자의 동의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겠다. 김은하 외(2021)는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심리검사 사용에 대한 지침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장수미 외(2022)는 비대면 화상상담에 대한 제한점과 보완점으로 취약계층의 비대면 상담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윤리적 이슈의 대비를 제안했으며, 화상상담이 안정기지역할을 할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연구(고성원, 권경인, 2021)와 상담자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전문적, 윤리적인 필요성에 관한 논의(김영화 외, 2021)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 전문가로서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비대면 화상상담에서의 슈퍼비전 및 상담사 훈련을 강조하였다. D 대학원은 비대면 인턴십 상담과정에 슈퍼비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자주 경험하였으나, D 대학원이 아닌 환경으로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이 확장되면서,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비대면 화상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 구조를 이해하고 운영하기 위한 상담사 맞춤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내담자의 특성과 환경적 맥락에 따라 그들이 화상상담으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상담자가 민감하게 관찰하고 슈퍼비전을 통해 경험한 것을 논의하며, 나아가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등(이선혜, 이지혜, 2022, 한수미 외, 2021)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비대면 화상상담을 운영하기 위해 대면 상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던바 COVID-19를 계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비대면 화상상담에서 비

대면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상담을 준비하는 상담사를 위한 맞춤 상담사 훈련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슈퍼비전 연결과 전문적으로 개선된 플랫폼의 개발 등 더욱 관심을 기울여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 지지체계가 견고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반으로 이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주제와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 대학원에서 인턴상담사 경험이 있는 상담사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 화상상담의 이점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비대면으로 화상상담을 진행 중인 상담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화상상담 교육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연구자들 또한 D 대학원 학생으로서 연구 과정에서 내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인 상담자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상담 시스템 및 환경과 특성이 다른 상담기관으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아직 비대면 화상상담이 여러 상담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 참여자를 찾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이후 연구에서는 비대면 화상상담이 적용되는 경험의 범위를 다양한 센터와 학교, 기관 등으로 넓혀 비대면 화상상담 현장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비대면 화상상담이 다양한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담 진행이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비대면 화상상담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상담자가 효과적인 상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비대면 화상상담이 자리 잡는 시점에서 비대면 화상상담을 경험한 상담사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화상상담의 장단점을 탐색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비대면 화상상담의 요소를 알아차림으로 장점의 발견과 단점의 보완점을 도출하였다는 부분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고대근, 남윤희 (2007). 화상 교육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학술저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4, 213-223.
- 고성원, 권경인 (202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한 비대면(화상) 상담에서 상담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0), 255-273.
- 곽현주, 고은현 (2020). 코로나19로 인한 지도교수의 비대면 상담 사례 연구: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SNS 상담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융합학회**, 10(11), 202-209
- 김수아, 주종우 (2018). 가상현실 상담치료의 출력장치별 특성과 국내현황, **현대사진영상학회**, 21(2), 5-20.
- 김영화, 정진원, 인호연, 이자명, 이주영, 이아라 (2021).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상담실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자집단과 내담자집단의 참여경험,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21-52.
- 김은하, 이은설, 조예지 (2021). 대학상담센터 내담자들의 비대면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학 연구**, 22(2), 85-110.
- 김채은, 윤용희 (2018).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담 연구 동향, **상담교육연구**, 1(1), 175-195
- 남윤희 (2006). **실시간 화상 사이버 집단 상담의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선 (2021). **상담자와 내담자의 화상 상담 경험**.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분기별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669](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669)에서 2023. 5. 13 인출.
- 서미아, 김지선 (2020a). 가족상담사의 비대면 화상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8(4), 451-470.
- 서미아, 김지선 (2020b).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상담실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자집단과 내담자집단의 참여경험,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21-52.
- 송용섭 (2020). 공감적 인공지능상담가 활용에 대한 미래 전망, **신학논단**, 99, 163-194
- 양미진, 유준호, 박성륜, 유혜련, 김경화 (2016). 사이버상담의 효과성 검증: 단회 채팅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치료사학회지**, 8(1), 39-53.
- 양성철 (2017). 기본공간정보로서 지적정보의 활용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5(1), 39-49.
- 이동훈, 김주연, 김진주 (2015). 온라인 심리치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543-582.
- 이선훈, 이지혜 (2022).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상담실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집단과 내담자집단의 참여 경험,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21-52.
- 이수정, 변유나, 장현진, 이기세, 연규진 (2022). 상담자들의 화상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화상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4), 1455-1482.

- 이정미, 한혜원 (2021).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대면 상담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60(1), 51-66
- 이지원, 양현정, 김지근 (2019). 상담 챗봇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유용성 검증. **한국콘텐츠학회**, (19)4, 12-29.
- 임성진, 이정은, 한신 (2017).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25(1), 57-67.
- 임은미 (2006). **사이버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장수미, 정지형, 이희연 (2022). 휴먼서비스 분야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 42(1), 20-40.
- 정미라, 이송이 (2021). 비대면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주관성 연구. **코칭연구**, 14(2), 101-127.
- 주국희 (2020). 코로나19에서 겪는 가족갈등, 가족 내 성평등, 나아가 소통. **여성우리**, 64, 10-13.
- 최청락, 김혜정, 문정희, 이자형, 박금식, 이진숙 (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부산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 한국상담학회(2022). 2023년 온라인 원격화상 수련 인정기준 및 시행공고. <https://counselors.or.kr/>에서 2023.5. 13. 인출.
- 한수미, 이상일, 이경란, 이미옥, 이혜일, 김환 (2021). 온라인 상담에 대한 상담자들의 경험과 인식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1), 581-595.
- 홍지선, 최지선, 김희경 (2021).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에 대한 내담자 경험 연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8(4), 261-290.
- Berryhill, M. B., Culmer, N., Williams, N., Halli-Tierney, A., Betancourt, A., Roberts, H., & King, M. (2019). Videoconferencing psychotherapy and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Telemedicine Journal and E-health*, 25, 435 - 446.
- Dowling, M. & Rickwood, D. (2014). Online Counseling and Therapy for Mental Health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of Individual Synchronous Interventions Using Chat. *Journal of Technology in Human Services*, 31(1), 1-21.
- Geller, S. M. (2013). Therapeutic Presence: An Essential Way of Being. In Cooper, M., Schmid, P. F., O' Hara, M., & Bohart, A. C. (Eds.). *The Handbook of Person-Centred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2nd ed.), 209-222. Basingstoke: Palgrave.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사회과학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2년 출판).
- Simpson, S. (2009). Psychotherapy via Videoconferencing: A Review.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7(3), 271-286.
- Yuen, E. K., Goetter, E. M., Herbert, J. D., & Forman, E. M. (2012).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ernet-mediated telemental healt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3(1), 1 - 8.
- 원 고 접수일 : 2023년 09월 03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10월 06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18일

## Teletherapy Experiences in Counselors: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inha Kim	Yiemsuzie Bae	Junggyo Jung	Sunghee Hong
We mingssaem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NJ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Anyang Family Center	Hanyangisori Psychological counseling Hanam Center

This study explored counselors' experiences in teletherapy, which has increas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counselors at the D Graduate School Counseling Center, which had a stable teletherapy system. Among the counselors, 13 therapists who had conducted at least 2 cases of 10 or more sessions within the past 6 months were selected.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method was utilized, and 3 domain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as a result. The domains are as follows: <Personal experience with teletherapy>, <Evaluation of teletherapy>, <Suggestions for operating teletherapy>. The implication is that the study confirmed the positives and limitations of teletherapy as a new counseling method. Lastly, the study'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 : Teletherapy, Experiences of Counseling, CQR*

## 중국 부부 문제의 현황, 원인 및 과제

조 양\*

강 미 진\*\*

중국 화북이공대학교 이병훈 에듀컨시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과 결혼에 관련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의 개방으로 인한 빠른 경제 성장과 서구의 가치관의 유입으로 가족의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으며, 전통 가치관과 서구적 사고의 갈등, 높은 이혼율과 낮은 나이의 결혼, 저출산, 농촌과 도시의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대화로 인한 핵가족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 높은 이혼율과 낮은 출산율 등이 중국 부부 관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확인되었다. 부부갈등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감정적, 가치관의 차이, 고부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부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고 끝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중국의 부부 문제, 가치관 변화, 핵가족화, 고부 갈등, 저출산, 이혼율

---

\* 제 1저자: 조양, 중국화북이공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강미진, 이병훈 에듀컨시어지 상담사, 대구 수성구 동원로 25, E-mail: kkmijini@gmail.com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지역 및 계층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가족 및 부부 문제도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족규모의 경우 빠르게 축소되고 세대구성이 단순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핵가족이 만들어지는 반면, 농촌에는 여전히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부양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김혜영, 2013). 이렇게 과거에 비해 가구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부모부양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모부양의 문제는 대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심각한 편으로, 이는 농촌의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직장과 기회를 얻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에 남겨진 유수노인(留守老人)의 문제에 따른 것(공효결, 2012: Sun, 2010)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중국 부부들은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6만 명을 기록하며 61년 만에 총인구가 감소했다. 유엔에서도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는 계속적 감소로 13억 17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에포크타임스, 2023). 인구 감소의 위협을 느낀 중국은 1980년부터 35년 가까이 유지해 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 '전면 2자녀' 정책의 시행하였으나 저출산의 지속으로 2021년 5월 다시 '세 자녀' 정책 실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인구감소 추세는 지연될 뿐이고 반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임택평, 2019) 중국 정부는 인구의 안정적 증가와 출생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이영준, 이중희, 김성자, 2021).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혼인율 하락과 남녀 평균 결혼 연령의 상승,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가계부채 증가, 높은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 증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등이 출산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최미향, 유명, 2019). 이러한 인

구구조 변화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으로 65세 이상 인구 규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1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전체인구 수에서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2013년 9.7% 비율이 2017년은 11.4%, 2019년은 12.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다(임택평, 2019). 둘째, 출생인구의 성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여성을 100으로 할 때 2007년에 남성이 최고 125.5에 이르렀고, 2019년에는 114로 나타났다. 유엔(UN)이 설정한 출생인구 성비의 정상치는 103-107이다(신량재경, 2021). 셋째, 저출산에 따라 노동 가능 인구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소비 활력 유지와 경기 부양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임여성 인구가 출산율을 좌우하게 되는데, 낮은 결혼율로 인해서 가임 단계 여성의 비중 또한 낮아지고 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가임여성의 초혼연령은 21.4세에서 25.7세로 늦춰졌으며, 초혼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질 추세다(중국 민정부, 2017).

인구구조 변화로 중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특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낮은 결혼율이다. 2020년 중국의 혼인 건수는 813.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비혼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수준 향상으로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독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만혼, 독신,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높아지고 있어서 결혼율을 낮추는 요인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이혼율의 상승도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6%이고,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3.4%로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6~2017년 전체 이혼 소송 중 73.40%가 원고가 여성으로(중국 최고인민법원, 2019) 이 통계는 여성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중국의 전통관념이 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1960년대 이전의 여성들은 혼인을 일종의 계약으로 여겨 무슨 일이 생기든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조금씩 변화하였다. 현대의 중국 여성은 가정불화에 맞서 여성의 권익 보호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결혼의 질과 내면의 감정을 더욱 중시하고 더이상 가정생활에 있어서 억울함을 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서는 부부가 7년이 지나면 권태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치넨즈양(七年之痒)'이라는 말이 있다. 이혼 분쟁 사법 빅데이터에 의하면 결혼 권태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지며 결혼기간 3~5년에 위기를 겪는 비율이 가장 컸다고 한다.(The Joongang, 2018).

젊은 층의 인식변화도 결혼과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의 젊은 층은 결혼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고 결혼생활에서 서로 타협을 잘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젊은이들은 혼인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 후 3~4년차로 접어들면 대다수의 가정이 자녀를 갖게 되면서 육아 스트레스까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일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부부는 혼인관계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The Joongang, 2018)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혼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 이혼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결혼만족도를 들고 있다.(구혜경, 유영달, 2008; 김득성, 1994).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에 대한 주관적

인 감정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정의된다(양순미, 정현숙, 2006). 중국에서 결혼기간 6년을 전후하여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 시기 부부들이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신사원, 2019). 특히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의 결혼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는 다른 변인들보다 부부관계 관련 변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희, 2015; 윤희진, 2010; 조성희, 박소영, 2010).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부들의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나 문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혼 초기는 개인의 삶을 부부라는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역할, 의무와 책임 등이 일어나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시기이며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결혼생활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다(이보미, 2016). Huston, Caughlin, Houts, Smith와 George(2001)는 결혼 초기에 형성된 부부관계가 이후 결혼생활의 질을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국의 신혼부부에게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 청년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만 있고, 부부관계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에서도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부부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놓여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부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정정(2021)은 부부간의 소득 비율이 부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본인 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의

경우는 본인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중국 도시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결혼 초기 감사표현이 많을수록, 협력적 부부대처가 높을수록, 즐거운 부부활동을 많이 할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 초기 중국 도시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사원, 2019).

고상(2022)의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여성들은 세 자녀 정책의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론은 직장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여러 곤란을 경험한다는 것과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들의 경우, 모두 세 자녀 정책과 무관하게 더이상 출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중국의 많은 부부들은 가정과 개인의 균형을 이루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근평(2022)의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의 둘째 출산 의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경우 둘째 출산 의향이 낮았다. 부부의 양육분담 특성 중에서는 지각된 양육분담 공평성이 둘째 출산 의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남편과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둘째 출산 의향이 높았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부부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떠한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중국 부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가에 대한 원인 연구는 부족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유교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중국의 부부 관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최근에 문제로 떠오르는 부부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국 고대 결혼의

특성에서 현대 결혼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중국 결혼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대 중국 부부 관계의 갈등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셋째, 중국 부부의 문제점과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중국의 결혼 및 부부관계 현황

결혼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결혼 관계 즉, 부부 관계는 가정을 유지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고대 중국의 결혼은 풍부한 의미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윤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결혼 관계를 일반화하고 안정적 가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고대 중국 결혼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중국은 집안 대 집안, 즉 양쪽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시하였다. 고대 중국의 결혼은 가족 간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명예와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남녀의 가족 간의 지위 차이가 크면 결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남존여비(男尊女非)의 사상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로 결혼 제도에도 일정한 불평등이 존재해왔다(염옥, 2009).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의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족의 책임이자 의무로 여겨졌다.

둘째, 고대 중국에서는 결혼 의식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의식을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 부부 사이의 감정과 신뢰감을 강화시켜 주었다. 결혼식은

엄격하고 엄숙해야 하며 전통적인 예의와 풍습을 따라야 했다. 그리고 의식에서 신랑 신부는 가족에게 성의와 감사를 표현하였다.

셋째, 고대 중국에서는 가족 상속을 중시했기 때문에 결혼도 가족 혈통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였다. 남녀의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이익과 책임도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혼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은 결혼의 성공과 가족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고대 중국의 결혼 형태와 의례는 매우 엄숙하고 성대했으며 전통문화 색채와 가족 개념이 강하였다(도의, 명훈, 1994). 시대가 변화에 따라 전통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의례와 관습은 여전히 중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복잡하고 현대적인 사회 변혁의 맥락에서 전통과 현대의 차이는 가족 구조, 가족 관계, 문화 개념, 결혼 상호 작용 및 성별 관계의 복잡한 문제로 확산되었다. 중국 국가 통계국(2021)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이동 및 젊은 세대의 결혼 후 독립 거주와 같은 요인으로 중국의 가구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 2020년 가구당 평균 인구는 2.62명으로 감소하였고 핵가족이 주된 가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조봉, 계영춘, 진비남, 2021).

중국 가정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족 구조는 현대 핵심 가구와 전통 가족의 다세대 동거 가족이 공존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족 규모의 소형화 등 현대적 특징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3세대 가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가족 관계 측면에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증거와 세대 간의 관계가 여전히 강하거나 심지어 강화되었다는 이른바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모자이크 모델'이 등장하였다(계영춘, 2020).

가족 핵심화가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일 수 있는데, 가족 핵심화는 대가족 갈등을 줄여 세대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공동의 이익을 가진 대가족 구성원 간의 교류가 크게 줄어들어 세대교류의 방식이 변경되고 가족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족 관계를 재구성하지만 세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는지 또는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경험적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의 전환 과정에서 가족 가치 개념의 영역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통문화 개념이 부흥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조도 대두되고 있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전통적인 효문화는 부모와 자녀의 '화합, 공생'을 강조하며, '효'의 관념은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킨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효도 문화는 현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친', '시부모'와 같은 효도 개념이 사회 전환기에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효도는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의 연속이며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행동, 사고에서 나타나고 있다(공효걸, 2012).

가족의 현대화 이론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환에서 가족 구조의 간소화와 함께 가족 관계에 일련의 변화도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론에 따라 현대 관계는 전통적인 세대 간 권위에 복종하는 모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적인, 평등하게 협상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적 맥락에서 개인의 가족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요소와 현대 개인주의 요소가 공존한다.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은 공공 생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유교 문화의 규범 아래에서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감정과 욕구 측면에서 개인의 주체 의식이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가정 생활에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종샤오후이, 하식응, 2014). 현대의 개인은 점점 더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친밀함은 개인이나 젊은 부부 사이의 상호 만족감에서 비롯된다.

친밀함의 주요 특징은 부부 간의 강한 정서적 의존이며, 개인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더 중시하고 자기 표현, 상호 의존 및 감정적 따뜻함을 중시하고 있다(엔원상, 양원치, 2017).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결혼관계에서 남녀의 권력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대화로 세대 간 권력관계가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노동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졌으며, 가정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인 가정에서 가부장적 문화, 가사 노동의 분업과 같은 요소가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남녀 성평등 개념과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치,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개인의 발전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한 성 개념과 혼재하는 부부관계에 대해 남성은 가부장적 전통을 더 공감하고 여성은 사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는 현대적인 부부 관계를 더 인정하고 공감(England, 2010)하고 있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와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고 결혼에 대한 개념과 행동도 많이 변하여 젊은 남녀의 배우자 선택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19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대 대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허가명, 2019), 대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시대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은 상대방의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여학생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배우자 선택이 더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 동기 측면에서 농촌 대학생은 도시의 대학생보다 전통적인 개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왕수진, 2008).

그리고 중국의 소득 다변화와 직업 분화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조건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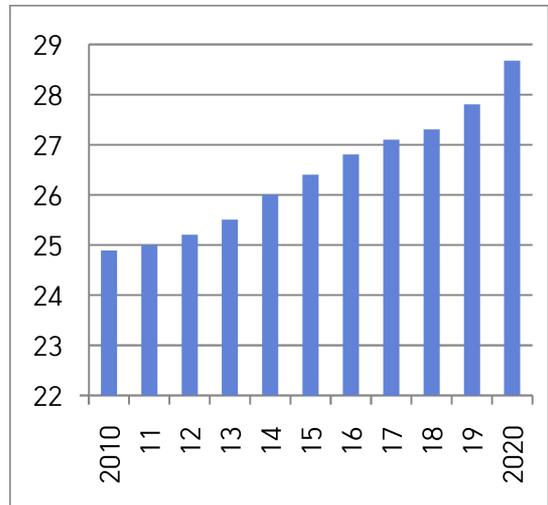


그림 1. 2010-2020년 중국 평균 초혼 연령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한 조건 중에서 상대방의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고 사업 및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배우자 선택이 점점 더 현실적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성 또한 점차 여성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여 배우자 선택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첸밍이, 왕이핑, 장샤오원, 2003).

결혼과 관련하여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 의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결혼 지연 의향은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67세로 2010년 24.89세보다 3.78세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초혼 나이는 그림 1과 같다(중국통계국, 2021).

그리고 중국의 '2021년 현대 청년 결혼 상태 연구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20~40세) 중 55.5%가 현재 독신 상태이며, 이 중 34.6%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Aurora Mobile, 2021)고 한다.

세대별로 보면 이미 '사회로 진출한' 90년대생 중 46.4%는 아직 싱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대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성친구가 없고, 1/3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모태 솔로'이다. 이들은 혼자를 즐기고, 다양한 취미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결혼 의향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결혼하지 않는다'와 '결혼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이 43.92%로 남성보다 19.2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결혼에 더 강한 망설임을 보이는 것은 결혼에 대한 여성의 태도가 더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비율이 14.4%로 소도시 청년들보다 7.7% 높아서 경제가 발달할수록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 통계 연감(2021)에 따르면 중국에서 결혼율이 가장 낮은 성(成)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상하이와 저장성이며, 2021년 현재 중국의 독신 인구는 2억 3,900만 명에 달하고 젊은이들의 결혼 및 출산 연령은 점차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 중국 부부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

부부 관계는 가치관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성역할에 대한 기대, 이상적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 부부 사이에 종종 갈등이 발생한다. 최근 중국인민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결혼률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학계, 언론과 대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2021)에 따르면 대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고 2023년 중국의 이혼자 수는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9년 중국의 이혼한 커플은 319,000쌍으로 이혼율이 0.3%에 불과하였지만, 2009년에는 246.8만 쌍, 이혼율 1.8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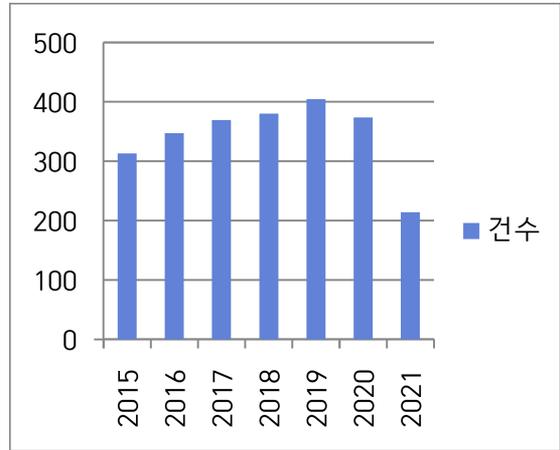


그림 2. 2015-2021년 중국 이혼신고 건수

증가하여 연평균 7.1%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신고 건수는 그림 2와 같다(화경산업연구소, 2022).

이 같은 이혼율의 증가는 중국의 이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중 도시의 이혼율은 4%로 농촌 지역의 2%보다 더 높다. 이는 주로 도시 거주자의 생활 스트레스와 업무 스트레스가 더 크며 도시 거주자의 사고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자아 가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도시 남녀 간의 정서적 갈등을 심화시켜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감정적 불화,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고부 관계, 불륜 등이다. 이혼은 부부 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면 이혼 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허기, 구택기, 이건신, 2020).

뤄샤오원(2007)은 결혼 갈등을 '의견 불일치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부부 간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과 다툼'으로 정의하였고, 옌위(2009)는 '부

부 갈등이 첨예화 된 후 취한 적대적 태도와 폭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혼 갈등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부부 갈등은 경제적, 삶의 이념, 감정적, 생활적 등의 이유로 부부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공격과 다툼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나타나는 부부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쉬웨이, 2013). 첫째, 부부갈등은 일반적인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생각과 개념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종종 마찰과 갈등이 발생한다. 둘째, 부부 갈등의 표현 양상은 다양하다. 실생활에서 부부는 사회생활의 배경에 따라 개인의 차이와 외부환경, 여론의 영향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부부가 교육받은 것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표현방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부부간 갈등의 표현양식도 개인의 성격과 습관과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부부충돌의 표현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말다툼만 할 뿐이지만, 일부는 싸움으로 발전하거나 가정폭력으로 변질되어 상대방의 신체, 심리, 심지어 결혼생활까지 파괴할 수 있다(자루, 오임강, 2012).

## 현대 중국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삶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다양한 정도의 갈등과 충돌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삶에서 이상적인 부부 관계 유지는 쉽지 않다.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남자는 바깥 일, 여자는 집안 일' 부부 모델에서 남녀평등한 부부 모델로 변화했으며, 전통적인 '부모의 명령, 중매인의 말'에서 부부간의 결혼 자유로의 전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되어 부부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부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부부 갈등의 경제적 시각

경제는 가정생활의 기둥이며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가족의 의식주 문제를 결정지으므로 가족의 지출 문제에 대해 서로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가정의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력은 부부관계와 가족의 화목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선애, 2005). 따라서 경제적 주도권, 의사결정권, 가사분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부갈등이 생길 수 있다.

첫째, 경제주도권에서의 부부 갈등이다. 부부관계는 돈의 향유가 아니라 사랑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부부간에 소득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부부 신분의 고하를 나누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대 중국에서는 '삼종사덕(三從四德)'과 같은 전통적인 가족 윤리의 오랜 영향으로 인해 여성은 거의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남성의 부속품으로 존재했다. 오랜 남권 사회에서 재산 상속권과 같은 경제적 권리도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중화민국 시대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 주도권은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있었으며, 이 시기의 부부갈등은 항상 여성이 약한 쪽에 놓여 있었다.

둘째, 부부관계 주도권으로 인한 부부갈등이다. 결혼의 이상적인 상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누가 강하고 약하다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주고 평등하게 기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부부의 주도권은 결혼 가족 제도에서 공통의 자원 사용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대부분의 결혼에서 강한 쪽과 약한 쪽이 있다(주국보, 여승문, 2022). 중국 현대사회에서 일어난 페미니즘 사조와 여성해방운동으로 '삼종사덕'을 내용으로 하는 남성의 절대적인 결혼주도권의 구도가 깨어지고 남녀평등 발언권, 여성주도 발언권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 및 가족 관계의 남여 위상과 구조에 따라 남성 강자, 여성 강자, 남성 약자, 여성 약자의 4가지 가족 구조가 지배적인 상황이나, 부모

가 결혼 생활에 개입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는 현상도 아직 남아있다. 결혼과 가족 생활에서 더 많은 발언권과 의사 결정권을 가진 쪽은 당연히 강자이다. 강자는 부부생활에서 암묵적으로 약한 쪽이 자기 의견을 따르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중국에서는 많은 부부들이 이미 이러한 결혼과 연애의 '강자약자' 관계에 적응하고 있고 대체로 남자가 강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로 들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내는 가족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할 수 있어 통제에 익숙해져 있는 남성들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갈등을 경험한다.

셋째, 가사 분업으로 인한 부부갈등이다. 가사 분업은 가족의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모든 가정에서 매일 마주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부부 갈등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대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일하고 돈도 벌지만, 아내는 여전히 가정일에 책임을 지고 있어 기존의 가족 분업 모델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남편은 가장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양성관계의 균형보다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부부 갈등의 감정적 시각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부부간의 감정의 화합과 부부생활의 조화를 더 많이 추구하며, 사랑없는 결혼에 점점 더 많은 부부들이 싫증을 느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많은 부부가 일상적인 일에 파묻혀 결혼의 '피곤함'이 증가하고 '삶의 재미'가 감소하며 부부간의 '누적 피로'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부부간의 감정이 냉담해지는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갈등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결혼 전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현재 많은 중국 젊은 남녀는 다양한 결혼관과 서구 개방주의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서로의 감정적 이해 기반은 약하다. 중국에서는 함께 지낸 기간이 짧고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혼을 하는 것이 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많은 남녀들은 설레는 감정으로 급하게 사귀고, 깊은 이해 없이 빠르게 결혼을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휴대폰 및 온라인 방법을 통해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에, 교제의 시간이 짧고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결혼을 하여 결혼 후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경험한다.

둘째, 부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다. 부부의 소통과 교류는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애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장점이 많이 들어오지만 결혼 후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로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된다. 즉,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다양한 부부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결혼의 해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불륜으로 인한 부부싸움이다. 혼외정사는 남녀가 이미 결혼한 가정 밖에서 느끼는 감정 또는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신체적 탈선'과 동일하다(귀쿤, 장하이타오, 2016). 2015년 중국의 남성은 34.0%, 여성은 13.4%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관수이밍, 2017). 경제적 성장 이전의 사람들은 일단 불륜이 발생하면 사회의 많은 여론의 질책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되어 외도가 쉽지 않았다.

현재는 도시 남성의 외도는 농촌 남성보다 높으며, 교육 수준은 여성 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 측면에서 사회

직 업무시간, 소득, 직업적 지위 및 취업 업종, 외모 매력은 남성 외도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애정 만족도는 외도할 확률에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공택우, 2021).

일반적으로 남성은 생물적 본능, '3처 4첩'개념, 부부의 약한 감정적 기반과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 때문에 불륜을 경험하고, 여성은 현대생활방식의 변화로 여가시간 증가, 문화 오락과 이성 교체 기회 증가와 남편의 불륜이나,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의 보복으로 불륜을 한다. 이러한 불륜은 기존 결혼에 대한 파괴적 행동이며,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넷째, 부부갈등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2001)' 적용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행위자가 구타, 결박, 잔해,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일정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 사고개방, 여성의 권익 지위 향상으로 가정폭력 발생률은 중국의 구사회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여성보'의 의뢰로 베이징, 하얼빈, 상하이, 항저우, 지난, 우한, 쿤밍 등 10개 도시의 2500개 가정을 방문한 결과, 33.3%가 다양한 정도의 가정폭력을 보였으며 그 중 91.4%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원진, 2006). 수년 동안 가정 폭력은 여전히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가정 문제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심신을 손상시키고 부부 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한다. 중국은 가정폭력 문제가 가정과 사회 안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

국 민법전'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가족 구성원 이외의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간의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법적 구속을 받는다. 2004년 말, 중국의 22개 성은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 폭력에 대한 규정, 의견 또는 방법을 제정하였다. 중국 여성연맹은 여성 및 아동의 가정 폭력, 학대 및 기타 침해 사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나, 잔존하고 있는 중국의 전통 관념으로 가정폭력은 여전히 부부관계의 문제 원인이 되고 있다.

#### 가치관으로 인한 부부갈등

부부갈등의 징후는 삶의 가치관에 존재하며 현대인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견해와 생각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생활에서 출산, 교육, 노인 부양, 업무 중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삶의 개념이 통일되지 않으면 부부 생활도 조화롭지 않게 된다. 쌓이는 부정적 감정이 많아지고 발산할 곳이 없을 때, 배우자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부부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공효결, 2012). 부부 간의 서로 다른 출산 개념, 자녀 교육 및 양육, 노인 부양에 대한 견해, 서로 다른 생활 습관, 가사 처리에 대한 생각 등이 모두 부부갈등의 징후들이다. 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부부간의 서로 다른 출산관이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 모두에게 출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권은 합법적인 결혼의 기초에 따라 국민이 자녀를 낳고, 어떻게 낳고, 언제 낳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 하나로 서구 여성주의의 자유 출산 개념에 영향을 들 수 있다. 동서양 문화의 확산과 통합으로 중

국의 많은 여성들이 독신주의를 선택하고 덩크족<sup>1)</sup>을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선택하였다(진가명, 2021).

자오샤(2022)에 따르면 전국 11개 성에서 7,150명의 기혼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년의 출산관리는 새로운 특성을 보였고 아이는 여전히 가족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출산은 더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의 최종 지배권은 여성의 손에 달려 있으며, 남녀의 출산 개념이 통일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노화를 막는다는 중국의 전통 개념인 ‘양인방노(養人防老)’는 수천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으로 중국의 일부 전통 가정에서는 여전히 강한 출산 의식과 다자녀 및 다복에 대한 특정 성별 선호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출산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어 서로 다른 출산 개념은 부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아이에 대한 다른 양육 개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로 이어져 양육 행동과 양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육아관 관련 요인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육아관은 주로 연령, 결혼 적응 및 향후 가족 구성원(가족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부부는 서로 다른 개인으로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서로 다른 교육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번째는 부부의 부모 부양 방식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온다. 중국 혼인법 제 21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및 교육의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 및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았고, 생활 환경이 달라 부모님 부양에 있어 가족 부양과 기관 부양, 물질적 부양과 정신적 부양 등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부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네 번째는 확대 가족과의 가치관 갈등을 들 수 있다. 부부는 결혼 후에도 두 대가족에 속해 있으므로 가족의 수가 많으면 부부와 가족의 다른 구성원 간의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다(진교비, 2009).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문화적 배경, 가치관, 생활방식,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한 가족이 된 후 함께 살게 되면 의견의 차이를 일으키기 쉽다. 고부관계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고부관계를 잘못 다루면 중간자의 입장인 남편이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뺏어나가면서 생기는 관계를 격세지 관계라고 한다.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조부들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 조부모가 돌보는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젊은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격세지 관계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어른들의 다른 문화 수준, 가족 배경, 물질적 경제 및 기타 요인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아이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는 갈등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된다.

## 논 의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 부부 문제의 현황, 원인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중국 부부 문제의 현황과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른 경제의 성장과 서구의 가치관 등의 영향으로

1) 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DINK)로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의미이다.

중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높은 이혼율,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서 사회의 기본적 구성인 가정의 행복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 고대 중국은 집안 대 집안, 즉 양쪽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시하여 결혼 제도에도 일정한 불평등이 존재해 왔다(염옥, 2009). 하지만 중국의 전통 결혼 의식은 축복의 상징으로 부부사이의 신뢰감을 강화시켜 주었고 결혼 의례는 매우 엄숙하고 성대하여 전통 문화 색채와 가족 개념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가족 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중국에서는 현대 핵심 가구와 전통 가족의 다세대 동거 가족이 공존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조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세대 간 권위에 복종하는 모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적인, 평등하게 협상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결혼관계에서 남녀의 권력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젊은 남녀의 배우자 선택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인 가문과의 약속에 의한 배우자 선택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결혼 연령의 지연과 낮은 결혼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현재 중국에서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변화는 중국 부부에게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민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혼인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점차 자아 가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의 고용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생각과 개념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부부 갈등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시각의 차이로 경제적 주도권, 중대한 의사결정권, 가사분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부 충돌이 일어난다. 중국에서는 '삼종사덕'과 같은 전통적인 가족 윤리의 오랜 영향으로 인해 여성은 거의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였으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전환기를 겪으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페미니즘 사조와 여성해방운동은 '삼종사덕'을 내용으로 하는 남성 주도의 구도를 깨뜨리고 남녀평등 발언권, 여성주도 발언권 등의 요구로 부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적 시각 차이로 과거에는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으나 최근에는 부부간의 감정의 화합과 부부생활의 조화를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 부부간의 감정이 냉담해지는 것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 개방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혼을 하는 경향과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 외도, 부부충돌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정신적 공통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관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 부부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의 서로 다른 출산 개념, 자녀 교육 및 양육, 노인 부양 방법,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의 차이, 다른 가사 처리 방법 등이 모두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출산은 더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여성주의적 출산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노화를 막는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양인방노' 개념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부부의 성장배경에 따른 자녀 양육관과 교육관의 차

이도 갈등의 원인이다. 또한, 부부의 부모 부양 방식의 가치관의 차이, 확대 가족과의 갈등 등도 부부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통사상에서는 '자식과 해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식과 함께하는 노년의 행복함에 대한 희망이다. 하지만 현대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랜 시간보다 오히려 결혼의 질을 중요시 한다. 좋은 결혼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상호 이해, 서로를 부양하는 것,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 부부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전환기의 사람들은 결혼 및 가족 개념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관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통적 가치관에서의 장단점과 현대적인 가치관에서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 중 남성 권력 중심적이었던 가치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과 동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경제 주도권 다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등은 상당 기간 동안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가정경제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출산과 양육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길러 주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확산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확대 가족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조부모를 돕기프로그램 또한 개발 양산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결혼과 사랑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가정은 특별한 결합체로서 한편으로는 부부 관계와 친족 관계에 구심력, 응집력 및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인간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부부관계로 결혼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내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부부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중국의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와 결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국과 유사한 전통 관념을 가진 중국 부부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의 부부문제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선행논문 수집 과정에서 문헌 부족으로 학위논문까지도 포함하였다는 것과 중국 연구논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한계로 밝힌다. 둘째, 본 연구는 개관논문으로 중국의 부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았으나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등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이나 방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계영춘. (2020). 모자이크 가족주의: 딸의 노후에 비추어 볼 때 중국 가정제도의 변천. **21세기 저널**, 8.
- 고상. (2022). 세 자녀 정책이 중국 직장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공택우. (2021). 누가 바람을 피우겠어?: CHFLS에 기반한 실증분석. **대권학원 학보(사회과학판)**, 2.
- 공효걸. (2012). 당대 청년의 결혼 가정과 가치 지향. **사회과학**, 8, 22-28.
- 구혜경, 유영달. (2008).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이혼고려 정도 및 이혼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4), 1-34.
- 귀균, 장하이타오. (2016). 바람뒤의 논리. **청년연구**, 3, 77-86
- 김득성. (1994). 결혼초기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20, 25-34.
- 김소희. (2015). 기혼여성의 개인 내적 및 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가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혜영. (2013). 모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가족변화: 변동의 중층구조와 혼재성. **한국사회**, 14(2), 43-71.
- 도의, 명흔. (1994). **중국 결혼 가족 제도사**. 동방출판사.
- 뤼샤오원. (2007). 결혼 갈등이 학령기 아동의 심리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황과 영향 경로에 관한 연구. 원난 사범대학 석사논문.
- 쉬웨이. (2013). **부부갈등으로 본 현대 중국 젊은 이들의 결혼 가치 지향**. 서남정법대학교 석사논문.
- 신랑재경. (2021). **딩안화: 출산 전면 자유화가 시급**  
<https://baijiahao.baidu.com/s?id=1697700497296908299&wfr=spider&for=pc>  
에서 2021. 04.24 인출.
- 신사원. (2019). **결혼초기 중국 도시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부부관계 변인의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양순미, 정현숙. (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5.
- 양정정. (2021). **부부간 소득 비율과 행복: 2015 중국종합사회조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에포크타임스(2023.4.20.). 인도, 올 하반기 중국 추월해 인구 1위국 된다...유엔 보고서 | 출산율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에서 2023. 7. 20 인출.
- 엄옥. (2009). **당대 중국 결혼 윤리의 변천과 합리적 지도에 관한 연구**. 길림: 문사출판사.
- 예원진. (2006). **여성문화학도론**. 사면대학 출판부.
- 엔위. (2009). **당대 중국 결혼 윤리의 변천과 합리적 지도에 관한 연구**. 창춘:길림문사출판사.
- 엔원상, 양웬치. (2017). 사회적 자아주의: 중국식 친밀 관계-중국 북방 농촌의 세대간 친밀 관계와 하향식 가족주의. **탐구와 재능**, 7.
- 왕수진. (2008). 개혁개방 30년과 청년 배우자 선택 개념의 변화. **중국 청년 연구**, 1, 811.
- 우곤평. (2022). **중국 기혼여성의 자녀 양육기 발달과업과 들제 출산의향**.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윤희진. (2010). **친족관계 밀집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혼 10년 이하의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이보미. (2016). **취약성-스트레스-적응모형을 적용한 결혼 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예측 모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선애. (2005).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생활,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3), 147-169.
- 이영준, 이중희, 김성자. (2021). 중국 출산정책을 둘러싼 제3차 인구논쟁 연구. **아시아연구**, 24(3), 17-36.
- 임택평. (2019). **점점 가까워지는 인구 위기**, 중국 출산 보고서.
- 자루, 오임강. (2012). 결혼에 대한 다른 유형의 갈등 해결 방법의 영향. **중국 성과학**, 5, 49-53.
- 자오샤. (2022). 셋째 아이 출산 정책 배경 속 청년 출산관의 현황 및 대책. **베이징 청년 연구**, 2.
- 조봉, 계영춘, 진비념. (2021). **부부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대 관계입니까; 전환기 중 가족관계의 주축 및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논총.
- 조성희, 박소영. (2010). 가출 경험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1), 290-316.
- 종샤오후이, 하식웅. (2014). 협상식 친밀관계: 외동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와 효도에 대한 기대. **열린시대**, 1.
- 주국보, 여승문. (2022). **청년 결혼 가정 담화 주도권**. 하북청년관리간부학원학보.
- 중국 민정부. (2017).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 공보**.
- 중국 법무부 법률법규. (2001). **중화 인민 공화국 혼인법**.
- 중국 최고인민 법원. (2019). **이혼 조정기간에 대한 탐색과 이혼율**.
- 중국 국가 통계국. (2021). **제 7차 중국 총인구 조사 및 중국 통계 연감**.
- 진가명. (2021). **여성주의 출산자유관의 윤리탐사**. 하남사범대학 석사논문.
- 진교비. (2009). **우리나라 노인증양권익보장문제 연구**. 구이저우대학교 석사논문.
- 최미향, 유명. (2019). 두 자녀 정책 이후 중국의 출생 및 사회정책 변화. **국제사회보장리뷰**, 봄호(8).
- 첸밍이, 왕이핑, 장샤오원. (2003). 지난 15년 동안 중국 여성의 배우자 선택 기준 변화. **베이징대학 철학사회과학판**, 49(5), 121-128.
- 관수이밍. (2017). **2000-2015년 중국인의 전성**. 유한회사.
- 허기, 구택기, 이건신. (2020). **중국 부부의 이혼 패턴과 그 변천 추세에 관한 연구**. 사회학 연구.
- 허가명. (2019). 당대 대학생들의 이상 선택 실증 연구. **중국 성과학**, 28.
- 화경산업연구소. (2022). 중국 평균 초혼 연령. [www.huaon.com](http://www.huaon.com).
- Aurora Mobile. (2021). **현대 청년들의 결혼생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England, P.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and Society*, 77.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37-252.
- Sun, J. (2010). Migration of adult children and its impacts on famil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of rural China. *Population Journal* 1, 28-33.
- The Joongang. (2018.04.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61422>에서 2023.07.15 인출.

원고 접수일 : 2023년 09월 22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23일

## Current Status, Causes, and Challenges of Chinese Marital Problems

Zhao Yang

MiJin Kang

North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Lee Byeong Hoon Educoncierg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arise in marital relations in China and identify their causes and potential solutions. To achieve this, Chinese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marriage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issues such as conflicts with traditional values, high divorce rates, delayed marriages, and low birth rates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influence of Western values. Additionally, nuclear family structures resulting from modernization, changing marriage values,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women in society, and high divorce rates and low birth rates have been identified as common problems in China. The main causes of marital conflicts were identified as economic disparities, emotional differences, value conflicts, and tens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in-law and wiv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olutions to address the problems faced by Chinese couples were discussed, and finall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word : Chinese marital problems, changes in values, nuclear families, mother-in-law conflict, low birth, divorce rate*

#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류수정\*\*      박은아      정현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교육상담학회      신라대학교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릿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2.0와 Amos 22.0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한 후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는 반대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과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예방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공공기관 종사자, 그릿,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 류수정(2022년)의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류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차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현희,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E-mail: myghdlrptkd@naver.com

## 서론

최근 정책적,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무환경이 변화되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직무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공공부분 성과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이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규모감축 등이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표방하며 '공기업 정상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공공기관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자체 구조조정이나 신규사업 조정, 각종 복지후생 제도의 폐지 및 축소를 시행해야 했다. 게다가 2014년부터는 수도권 과열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행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며,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무환경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김지훈, 2017). 또한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다 사회적 가치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직무만족이란 직업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과 개인의 욕구와 포부가 충족될 때 느끼는 만족과,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직업적 필요성이 직업 환경에서 잘 충족될 때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Dawis & Lofquist, 1984). 이러한 직무만족은 기업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내적 측면에서 직무에 만족할 경우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

리고 가치판단이 향상될 수 있다. 외적인 측면에서 직무에 만족할 경우 직장인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직무환경이 만들어지며,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결국 직무만족으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려는 자발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가 증대된다(구자중, 2008). 따라서 직무만족은 근무 의욕을 높이며 직장인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동우, 김지영, 김호석, 2018; 이강문, 노태우, 2017; 이민송, 2020).

또한 직무만족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기관의 조직효과성 영향요인 연구에서 조직효과성과 직무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하정우, 2015),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공직자들은 조직 내·외부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황용, 2012).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밀접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성공경험, 즉 긍정적 정서와의 결합이 필요한데, 최근 성공적 수행과 성취를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성격 특성으로 심리학과 교육학, 경영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잇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이소운, 2019).

장기적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은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직무수행,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열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또한 그릿이 높으면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내적 동기가 형성되어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정현, 장성배, 탁진국, 2018). 특히, 그릿(Grit)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목표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덜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심미연, 황명환, 2019)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급변하는 정책적·사회적인 변화에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그릿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릿과 직무만족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릿과 직무만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영, 문혁준, 2019; 강현미, 박소윤, 2018; 구동우 외, 2018; 박민희, 조숙희, 2019; 이소윤, 2019; 정수진, 2020; 조현국, 2021; Dugan, Hochstein, Rouziou, & Britton, 2019; Von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 그리고 그릿은 직장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열의를 갖게 하고, 열의는 직무능력을 증대시켜 직무에 대한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Duckworth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을 가진 직장인의 경우 내적 동기가 형성되고 긍정 정서를 얻으므로 일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다(이소윤, 2019)고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가정하였다.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일반화된 기대(Sherer et al., 1982)를 의미한다. 업무환경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 팀, 조

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가진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이면에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이재하, 2018). 이처럼 조직 내 성과 향상을 위한 학습과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자기효능감’이며, 이는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판단과 관련된다(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공공 부문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문유석, 2010; 이동수, 박희서, 2008), 스트레스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문성, 박성철, 2011; 오성희, 2010). 그리고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열의를 높이는 데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운용, 2013),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상승하여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박지혜, 윤동열, 홍권표, 201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그릿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과 자기효능감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릿이 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이미란, 이해원, 탁정화, 2017; 이민자, 2021; 이완의, 2021; 이유진, 신용환, 박지영, 손영우, 2018; 이해원, 탁정화, 이미란, 2017). 이와 함께 그릿이 교사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며(강신영, 문혁준, 2019), 그릿과 삶의 만족, 행복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

였다(이완의, 2021).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이르게 하는 요소로 여러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정·일 충실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윤숙경, 김문중, 2016). 그리고 직무자율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으며(김해룡, 2006), 리더의 코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직무만족과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김정식, 이동우, 유호상, 윤태식,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으로 일정 기간 욕구를 억제하고 노력하며 목표를 추구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높여주어 과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강한아, 김아영, 2013).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과업에서의 성공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여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어진 업무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직무처리를 요구받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기노성, 백승영, 2021). 그중 정부 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관련(자기개발, 급여, 승진, 인사배치), 인간관계(업무지시의 합리성, 상사·동료와의 관계, 동료·상사의 지지), 직무관련(업무량, 의사결정 참여정도, 업무관련 전문

지식의 필요정도)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오미숙, 2011). 이에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라는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릿은 스트레스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직무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희은, 2018; 박선미, 2019). 그리고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릿이 낮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서현, 2020; 신여울, 구민주, 박다운, 2018), 그릿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이혜원, 2020).

이처럼 직무 수행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김원, 2019; 김정하, 가경환, 김병태, 김승현, 2011; 이선범, 김양현, 2017; 최정인, 하정, 2020).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매개변인으로써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부하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춰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이운용, 2013),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김미숙, 김남희, 2011; 유호현, 임준, 박귀화, 2015; 이미경, 정주리, 2019; 함철호, 2018). 선행연구에서 그릿(Grit)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하고 목표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덜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다(심미연, 황명환, 2019)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는 서번트 리더십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유사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만족 사이에서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김영배, 2019; 김영중, 2020; 백승영, 2019; Gastaldi, Pasta, Longobardi, Prino, & Quaglia, 2015),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정혜연, 이정운, 2009; 최희정, 이인수, 2009),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이경희, 송정수, 2010)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무수행에서 일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각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그릿과 직무만족, 그릿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검증된 바 있으나, 네 변인 간의 관계를 동시에 검증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릿과 연관 지어 직무만족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직무만족과 관련성이 높은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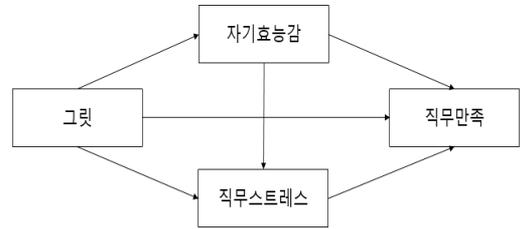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러한 연구는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에게도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그릿 연구를 공공기관 종사자에 접목시켜 공공조직 맥락에서 그릿의 유효성을 살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목표몰입의 필요성이 강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그릿의 특성을 조직 내에서 발휘하게 된다면 개인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직무만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상담개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질적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주는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경로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5)**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성	152	48.3
	여성	163	51.7
연령	20대	53	16.8
	30대	152	48.3
	40대	96	30.5
	50대 이상	14	4.4
재직기간	1년 미만	24	7.6
	1년 이상 ~ 5년 미만	88	27.9
	5년 이상 ~ 10년 미만	95	30.2
	10년 이상 ~ 15년 미만	47	14.9
	15년 이상	61	19.4
합계		315	100.0

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한 달에 걸쳐 온라인과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7명이 응답하였으며, 무성의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결과 최종 315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 그릿 척도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원척도의 축소판인 Grit-S (Duckworth & Quinn, 2009)의 문항들을 하혜숙, 임효진과 황매향(2015)이 수정, 번안하고 임효진(2017)이 타당화 검증을 한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흥미 유지(4문항), 노력 지속(4문항)의 2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효진(201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 직무만족 척도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Weiss, Dawis와 England(1967)가 개발한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 MSQ)를 박아이린(2005)이 번안하고 안미준(2019)이 타당화 검증을 한 연구에 사용된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내재적 만족(14문항), 외재적 만족(6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불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로 평정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안미준(201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차정은(1997)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 및 타당화 검증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의 하위요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199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 등(2005) 연구자들이 개발 및 표준화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을 직무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무요구도(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 불안정(2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직장문화(4문항)의 7개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장세진 등(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서 완전판별(just-identification) 되기 때문에 CFI는 1, 값을 비롯해 자유도(df), TLI, RMSEA는 모두 0으로 모형적합도 지수는 의미가 없으므로(이지은, 김수영, 2018),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의 직접경로와 매개(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 부트스트래핑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원자료(N=315)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했고, 간접효과의 90%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에 대한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  $\langle \pm 2.0$ , 첨도  $\langle \pm 7.0$ 인 경우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왜도는 자료의 정규성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첨도는 점수의 비율이 정규분포곡선에서 중간이나 끝부분에 몰려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공공기관 종사자 그릿의 평균값은 3.31로 5점 척도의 중간값인 2.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4.09로 6점 척도의 중간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평균값은 2.20로 4점 척도의 중간값인 2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N=315)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그릿 전체	3.31	.53	-.07	-.13
자기효능감 전체	4.09	.50	.11	.47
직무스트레스 전체	2.20	.23	.11	.48
직무만족 전체	3.60	.37	-.19	-.54

났다. 직무만족의 평균값은 5점 척도의 중간값과 비교하여 3.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 절대값 2이하, 첨도 절대값 7이하로 모두 정상성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한 미지수의 추정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로분석 모형검증의 적격성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그릿은 자기효능감( $r=.60, p<.001$ ), 직무스트레스( $r=-.29, p<.001$ ), 직무만족( $r=.3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직무만족과는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r=-.34,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이고,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r=.35,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r=-.68,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인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315)

	1	2	3	4
1. 그릿 전체	-			
2. 자기효능감 전체	.60***	-		
3. 직무스트레스 전체	-.29***	-.34***	-	
4. 직무만족 전체	.31***	.35***	-.68***	-

\*\*\* $p<.001$

### 경로모형 검증

본 연구 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서 완전판별(just-identification) 되기 때문에 CFI는 1, 값을 비롯해 자유도(df), TLI, RMSEA는 모두 0으로 모형적합도 지수는 의미가 없으므로(이지은, 김수영, 2018),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의 직접경로와 매개(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 경로계수를 도식화하여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4 및 그림 2와 같이 경로계수가  $p<.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경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N=315)

경로	B	$\beta$	S.E.	C.R.
→ 자기효능감	1.69	.60	.12	13.445***
그릿 → 직무스트레스	-.17	-.14	.08	-2.047*
→ 직무만족	.13	.07	.08	1.489
자기효능감 → 직무스트레스	-.12	-.26	.03	-3.975***
→ 직무만족	.05	.08	.03	1.701
직무스트레스 → 직무만족	-.84	-.64	.05	-14.919***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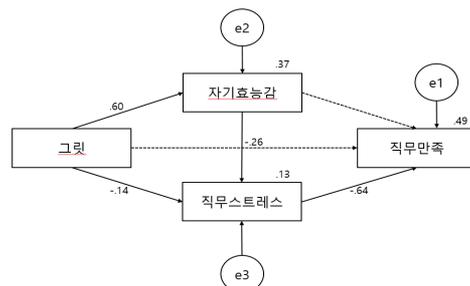


그림 2. 경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 간접효과 분석

###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인 Sobel 검증이 가질 수 있는 정상성 가정의 위배 가능성에서 벗어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릿이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직무만족으로 가는 효과는  $B=.15$ , 90% 신뢰구간에서 .02~.28이며,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거쳐 직무만족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B=.17$ , 90% 신뢰구간에서 .10~.25로 나타나 모두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ootstrap		90% 신뢰구간	
	B	SE	lower	upper
그릿 → 직무스트레스 → 직무만족	.15	.07	.02	.28
그릿 → 자기효능감 → 직무스트레스 → 직무만족	.17	.04	.10	.25

\*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 : 10,000번

## 논 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성공적 수행과 성취를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성격 특성으로 연구되고 있는 그릿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문승태, 주지영, 2020; 우영지, 김나래, 2020; 유은영, 김태인, 2018; 이민자, 2021; 이유진 외, 2018; 이혜주, 2020; 정은이, 2018)와 일치하고, 그릿이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강신영, 문혁준, 2019; 구동우 외, 2018; 박민희, 조숙희, 2019; 정수진, 2020)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그릿이 높으면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나며, 그릿이 낮은 구성원의 자기효능감 수준도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신윤정, 전주람, 2020; 이유진 외, 2018)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가 강할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신영, 문혁준, 2019; 구동우 외, 2018; 박민희, 조숙희, 2019; 정수진, 2020; Dugan et al., 2019; Ion, Mindu & Gorbanescu, 2017)를 지지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릿과 직무스트레스의 부적 관계는 선행연구(박선미, 2019; 박혜린, 2021; 이민자, 2021; 이혜원, 2020; 정운아, 오명수, 김희숙, 2020; 최민숙,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릿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게 경험하며(박혜린, 2021; 이민자,

2021; 정윤아 외, 2020; 최민숙, 2020),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김희은, 2018; 박혜린, 2021; 정윤아 외, 2020)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과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내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정혜연, 이정운, 2009; 최희정, 이인수, 2009)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증상이 낮아진다는 분석(한금선, 김남신, 김정화, 이광미, 2004)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박주은, 2017; 윤숙경, 김문중, 2016; 장태원, 2013; 하형란, 2012)와 일치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장태원, 2013; 하형란, 2012),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박선희, 2021; 송영숙, 2020; 이유영, 2018; 전미선, 전영준, 2017; 최고은, 2020)를 지지해준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임을 검증한 선행연구(김원, 2019; 김정하 외, 2011; 이선범, 김양현, 2017; 조경희, 고희석, 2010; 최정인, 하정, 2020)와 맥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박충민, 2010; 오미숙, 2011; 이상기, 2017)를 뒷받침한다.

둘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릿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춰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대훈, 2018)와 맥을 같

이한다. 특히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길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업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무성과의 강력한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영신, 이경란, 안자영, 이상희, 2015). 이로 보건대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춰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릿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춰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심리 자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도전적 과업을 선택하고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자주 수행을 점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Bandura, 1982). 조직에서 긍정심리 자본이 개발되면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저항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버퍼(buffer) 역할이 강화되어 스트레스 수준을 저하시키므로 긍정심리 자본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김진열, 정승언, 2019).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조직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김영배, 2019; 김영중, 2020).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행동에 몰입하고, 직무만족도 높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어 보다 고객지향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기노성, 백승영, 2021).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정혜연, 이정운, 2009; 최희정, 이인수, 2009),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그

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직무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그릿, 스트레스, 만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라는 추가적인 경로를 밝혀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여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신영, 문혁준, 2019)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제3 변인의 영향 때문임을 고려할 수 있다(문수백, 2009). 즉, 그릿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로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은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릿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시사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려고 할 때, 직무만족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접근과 개입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를 중요한 요인으로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다양한 문제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해야 하고,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설계하고자 하였지만, 다루지 못한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보다 관련성이 높고 심층적인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을 중심으로 서울, 경남 등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본 선정에 따른 특수성과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업종을 가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더불어 관찰법, 면접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변인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릿과 연계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재직기간이 다양하다. 이러한 종사자의 특징은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정보에 대해 통제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그릿,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이제까지 대학생 혹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릿과 삶의 만족도, 그릿과 주관적 안녕감 등의 연구가 심리학, 교육학에서 주를 이루었다(이정림, 권대훈, 2016; 주영주, 김동심, 2016; 하혜숙 외, 2015; Duckworth, 2016; Salles, Cohen, & Mueller, 2014). 이렇듯 그릿의 중요성과 유효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그릿을 연구한 연구는 조직심리학이나 경영학 등에서 보고한 연구(신여울 외, 2018; 장다희, 김상림, 2019) 외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의 적어도 1/3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당면한 심리적 어려움과 이와 관련성이 높은 직무만족에 주목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인으로 그릿을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좁혀서 그릿에 중점을 둔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그릿과 직무만족, 그릿과 자기효능감, 그릿과 직무스트레스의 직접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더라도 존재했지만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개별 매개효과로 본 연구결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했다. 또한 그릿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문승태, 주지영, 2020; 우영지, 김나래, 2020; 유은영, 김태인, 2018; 이민자, 2021; 이유진 외, 2018; 이혜주, 2020; 정은이, 2018; 신윤정, 전주람, 2020)는 있었지만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인으로 그릿과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접근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경로를 살펴보았으며, 공

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인과 회사 차원, 상담장면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부산을 중심으로 서울, 경남 등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본 선정에 따른 특수성과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업종을 가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집 할 필요가 있으며 관찰법, 면접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릿과 연계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강신영, 문혁준 (2019). 보육교사의 그릿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905-922.
- 강한아, 김아영 (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2), 263-283.
- 강현미, 박소운 (2018). 유아교사의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787-806.
- 구동우, 김지영, 김호석 (2018). 호텔기업에서 종사원의 그릿(GRIT)이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 그리고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1(1), 29-53.
- 구자중 (2008). **고용형태에 따른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대훈 (2018). 고등학교 교사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그릿( grit ), 스트레스, 삶의 만족 간의 관계. **교원교육**, 34(3), 209-228.

- 기노성, 백승영 (2021).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2025-2036.
- 김문성, 박성철 (2011).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5(4), 143-161.
- 김미숙, 강남희 (2011). 응급구조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5(2), 147-155.
- 김서현 (2020). 유아교사의 그릿과 심리적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영배 (2019). 경찰과 민간경비의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종 (2020). 고용복지 인력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연구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원 (2019).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역량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식, 이동우, 유호상, 윤태식 (2011). 리더의 코칭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374-386.
- 김정하, 가경환, 김병태, 김승현 (2011). 공항 특수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8(2), 233-253.
- 김지훈 (2017).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 직무외적요인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열, 정승언 (2019). 긍정 심리 자본과 고객 지향성에 대한 작업열의의 매개 효과. **창조와 혁신**, 12(2), 59-97.
- 김해룡 (2006). 직무자율성과 조직구성원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0(3), 193-226.
- 김희은 (2018). 공연예술전공 대학생의 공연자신감과 숙달목표지향, 그릿, 스트레스대처 방식의 구조적 관계.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승태, 주지영 (2020). 대학생이 지각한 그릿(Grit)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3(3), 87-107.
- 문유석 (2010). 경찰관의 업무적 자아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3(4), 83-102.
- 박민희, 조숙희 (2019). 임상간호사의 그릿, 직무만족도와 재직의도와의 관계. **임상간호연구**, 25(3), 285-293.
- 박선미 (2019). 유치원 교사의 그릿,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몰입간의 구조분석.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희 (202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장기요양연구**, 9(2), 83-102.
- 박이아린 (2005). MSQ 직무만족도 검사의 문항 및 척도 타당성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이경란, 안자영, 이상희 (2015). 직장인의 스트레스 증상과 대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직무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17-338.
- 박주은 (2017).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효능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혜, 윤동열, 홍권표 (2019). 공공기관 구성원 개인의 직무 및 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지**, 32(12), 2199-2221.
- 박충민 (2010). 군조직 간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린 (2021).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영 (2019).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이직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0(4), 1325-1340.
- 송영숙 (2020). 여성 관리자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6(1), 139-159.
- 신여울, 구민주, 박다운 (2018). 보육교사의 그릿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2), 15-26.
- 신윤정, 전주람 (2020). 대학생의 그릿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965-991.
- 신황용 (2012).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미연, 황명환 (2019). 국내 고등학생의 자율성, 영어 학습 전략, 그릿과 영어학업성취도의 관계성 연구. **영어교과교육**, 18(4), 161-188.
- 안미준 (2019).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본심리욕구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숙 (2011).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희 (2010). **경찰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및 직무성취도 관련 변인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지, 김나래 (2020). 전문대생의 그릿(Grit)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657-674.
- 유은영, 김태인 (2018).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그릿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론집**, 22(2), 73-96.
- 유효현, 임준, 박귀화 (2015).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대처양식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9, 97-114.
-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간의 관계에서 그릿( grit)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6(3), 47-66.
- 윤숙경, 김문중 (2016). 가정-일의 충실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교육연구**, 30(2), 289-303.
- 이강문, 노태우 (2017).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인지된 직무성과의 선행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60-375.
- 이경희, 송정수 (2010).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6(1), 17-25.
- 이동수, 박희서 (2008). 지방공무원의 직무요인이 직무태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4), 1231-1252.
- 이미경, 정주리 (2019).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교육치료연구**, 11(3), 413-433.
- 이미란, 이해원, 탁정화 (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그릿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491-512.
- 이민송 (2020). **공공기관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자 (2021). **직장인의 그릿(Grit), 직무 스트레스, 직업적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간의 관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기 (2017).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인과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범, 김양현 (2017). 특수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3), 59-80.
- 이소윤 (2019). **직장인의 그릿(Grit)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과 직무몰입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의 (2021). **그릿이 초기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행복증진활동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운용 (2013). **공공기관에서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영 (2018). **직장인의 일의 의미와 직무만족의 관계: 직무열의를 통한 자기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 신용환, 박지영, 손영우 (2018). 투지(Grit)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 긍정정서와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1), 327-352.
- 이재하 (2018). **C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이지은, 김수영 (2018).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인간이해**, 39(2), 25-45.
- 이혜원 (2020). 유아교사의 그릿과 심리적 소진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교육의 이론과 실천**, 25(2), 21-34.
- 이혜원, 탁정화, 이미란 (2017). 예비유아교사의 그릿 군집유형에 따른 성격 5 요인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7(3), 249-268.
- 이혜주 (2020). 대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그릿,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관계 연구: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활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997-1022.
- 임효진 (2017).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장다희, 김상림 (2019).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그릿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5(1), 177-183.
- 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손미아, 채창호, 김정원, 김정일, 김형수, 노상철, 박재범, 우종민, 김수영, 김정연, 하미나, 박정선, 이경용, 김형렬, 공정욱, 김인아, 김정수, 박준호, 현숙정, 손동국 (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7(4), 297-317.
- 장태원 (2013).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선, 전영준 (2017).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공조직의 성과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2), 157-188.
- 정수진 (2020). **그릿과 직무만족의 관계: 목표-일자리 일치도의 매개효과와 사회경제적지위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아, 오명수, 김희숙 (2020).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 그릿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9(2), 96-105.
- 정은이 (2018). 대학생의 그릿 군집 유형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1-26.
- 정현, 장성배, 탁진국 (2018). 그릿(Grit)과 직무개선(Job Crafting)의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1(1), 31-51.
- 정혜연, 이정운 (2009). 청소년의 낙관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367-2381.
- 조경희, 고호식 (2010).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7), 404-419.
- 조현국 (2021). **간호사의 그릿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주, 김동심 (2016). 영재학생의 그릿(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 교사지원, 부모지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재교육만족도에 대한 예측력 검증. **특수교육**, 15(1), 29-49.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고은 (2020). **성인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숙 (2020).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뇌파와 기질 특성의 차이**.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인, 하정 (2020). **직업상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257-281.
- 최희정, 이인수 (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7(2), 175-194.
- 하정우 (2015).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형란 (2012). **경찰공무원의 조절초점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수준에 따른 성격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 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1(3), 145-166.
- 한금선, 김남신, 김정화, 이광미 (2004). **임상 간호사의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7), 1307-1314.
- 함철호 (2018). **바우치 서비스 제공인력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처-적응 모델의 적용**.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4, 81-114.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Y: Scribner.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Quinn, P. D., & Seligman, M. E. (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40-547.
- Dugan, R., Hochstein, B., Rouziou, M., & Britton, B. (2019). **Gritting their teeth to close the sale: the positive effect of salesperson grit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 Selling & Sales Management*, 39(1), 81-101.
- Gastaldi, F. G. M., Pasta, T., Longobardi, C., Prino, L. E., & Quaglia, R. (2015). **Measuring the influence of stress and burnout in teacher child relationship**.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and Psychology*, 7(1), 17-28.
- Ion, A., Mindu, A., & Gorbănescu, A. (2017). **Grit in the workplace: Hype or rip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1, 163-168.
- Salles, A., Cohen, G. L., & Mueller, C.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7(2), 251-254.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 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25.

Von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Weiss, D., Dawis, R. V., England, G. W., & Lofquist, L. H. (1967).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Long Form.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9월 12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10월 13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10월 19일

## The Effect of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Grit on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Sujeong Ryu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Euna Park

Korean Education and  
Counseling Association

Hyeonhee Jung

Sill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job satisfaction among public sector employees. The study was conducted on 315 public sector employees, and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study's results indicate that, firstly, public sector employees' grit is positively related to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Secondly, grit indirectly influences job satisfaction through job stress, but not significantly through self-efficacy. Thirdly, self-efficacy and job stress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ctor employees' grit and job satisfac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mproving job satisfaction among public sector employees involves mitigating or preventing job stress from negatively affecting self-efficacy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Finally, the paper discusse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Key words: Public Institution Employee, Grit,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Job Stress*

# 빅데이터에 나타난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영\*

천성문

김민지\*\*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의 관계중독에 관한 빅데이터를 Textom을 활용하여 국내외 포털사이트 3곳에서 수집하고, 분석대상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시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 알코올중독, 대인관계, 게임중독이었다. 둘째,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았고,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였다.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큰 매개역할을 가지는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결핍, 알코올중독 순으로 나타나 키워드 간의 최단경로상에서 구조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빅데이터, 관계중독,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사회적 인식

---

\* 제 1저자: 이지영, 부경대학교 석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민지,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48513)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405호,  
E-mail: kminji987@naver.com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며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희생하여 타인을 배려하거나 돌보는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중요시하거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몰두하여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관계에 강박적인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관계중독이라 한다(정은정, 정남운, 2019).

관계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거절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관계가 끝날 것에 대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송연주, 2019). 이러한 경향이 심할 경우 관계중독자들은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처를 주더라도 떠나지 못하며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파괴적 관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는 관계를 중독으로 여기는 이유에 해당한다. 관계중독일 경우 대상과의 관계에 의존적이고, 관계에 내성이 생겨 만족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관계의 단절이나 일시적 소원함을 견디지 못해 매달리고 집착하게 된다(Whiteman & Petersen, 1998). 이는 관계 중독자들이 거절을 비롯해 상대방으로부터 겪는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고 버림받고 혼자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계중독은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범죄와도 관련성이 높다(송연주, 최가연, 박대순, 2019; 이윤연, 장현아, 2017). 관계중독에 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수많은 형태의 중독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이나 대상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관계중독과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 경험의 상관을 밝힌 연구(김수민, 2016; 손승희, 2017; 오유미, 2016)들이 있으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김도희, 2022; 정하은, 2020)도 있다. 그

리고 관계중독과 부모의 양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성애, 2020; 전유미, 2016), 관계중독과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안명란, 홍혜영, 2016),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심리적 고통감과 관계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백지예, 2020), 거부 민감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임하나, 2021) 등 관계중독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관계중독 관련 연구의 주제들이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인 고찰을 위해 동향분석 연구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황명구와 송현정(2019)은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67편의 관계중독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대 배경을 반영하여 탈성매매 등의 사회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학생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관계중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학생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기에 관계중독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송연주(2019)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편의 국내 관계중독 관련 연구에서 관계중독 관련 연구 동향을 연도, 대상, 유형, 시기, 척도를 구분하여 5가지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계중독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으나 빈도 정보만 분석 틀에 기초하여 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 준거를 설정 후 분석 준거에 따른 빈도분석으로 양적 경향성은 알아볼 수 있지만 미시적인 주제어 수준의 단위를 분석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지식 구조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란 일반적으로 언어로 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언어에 내포된 다양한 특성들로 개념을 추출하여 그들 간에 형성된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이수상, 2014). 노드와 링크의 관계 구조 및 강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에서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경로로 전파되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래프나 매트릭스 형태로 개체 간의 영향력을 나타내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빅데이터전략연구소,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주로 분석 지표 및 시각화를 통해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한다. 밀도(Density)는 수집된 노드의 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뜻하며,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로 중심성(Centrality) 분석은 노드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손혜선, 천성문, 2022).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어떠한 개념이나 변수가 관계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밀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한 노드에서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가 많은 것을 연결 중심성이 높은 핵심어로 본다.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최단 경로 위에 있을 때 그 노드의 사이 중심성은 높아진다. 사이 중심성이 높다는 뜻은 네트워크에서 매개자 혹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키워드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라 한다(홍세희 외, 2019).

이처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특정 현상과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계 개념들을 도출해 특정 분야와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박윤, 양진희, 2018; 최영출, 박수정, 2011)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과 인식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계중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해 사회적 인식 분석을 근거로 관계중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관계중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관계중독의 방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관계중독에 관한 키워드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변인들의 영향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관계중독에 관한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관계중독에 상호작용 관련 연구물에 나타난 키워드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구조적 속성 및 중심성)는 어떠한가?

## 방 법

###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최근 5년간을 자료수집 기간으로 설정하고 Textom을 통해 수집한 Webdata로 국내·외 포털 사이트 3곳(Naver, Daum, Google)의 블로그, 카페, 뉴스, 학술정보 등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였다. 포털 사이트의 연산자 기준으로 관계중독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기 위해 ‘관계’, ‘중독’, ‘관계중독’ 키워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Textom 키워드 검색 페이지에 접속하여 ‘관계’, ‘중독’, ‘관계중독’이 언급이 될 때 동시에 출현하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수집 채널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이고 정보의 공유가 많은 네이버의 웹 문서, 지식인, 블로그, 카페, 학술 전문 정보, 뉴스, DAUM

의 웹 문서, 카페, 뉴스, 블로그, 구글의 뉴스, 웹이다. 구글 페이스북은 구글에서 수집한 페이스북 문서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관계중독의 사회적 인식 자료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채널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공유된 정보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김경철, 김은혜, 2017)을 형성할 수 있다. 학술 전문 정보 또한 동일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블로그, 뉴스, 웹페이지 등 재생산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한 데이터로 포함하였다. 결과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관한 수집된 데이터는 총 웹 2,582건, 블로그 1,484건, 뉴스 2,048건, 카페 1,953건, 지식인 996건, 학술정보 1,010건, 페이스북 176건이었다.

## 자료처리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순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 키워드인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Textom에서 RawDATA를 수집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정제작업을 시행하였고 명확한 해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제작업은 교정, 제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정제하였다. 데이터 정제작업은 1·2차 정제를 실시하였다.

Textom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웹 데이터,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학술자료, 페이스북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들을 키워드 필터링과 분석기를 통해 1차 정제를 하였다. 여기서 키워드 필터링이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제거한다거나 추출하는 기능을 말하며,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과시주의적인 소망을 보이는 등 관계중독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다." 이 부분을 '대인관계', '과시주의적', '소망', '관계중독', '가능성'으로 정제하는 것이다. 대표 키워드로 수집한 데이터들 가운데 중복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차 정제 과정에서는 키워드 간에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바로 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해 대표 키워드와 관련성이 낮은 하위 키워드와 알파벳, 한자 등 연관이 없는 키워드를 삭제하였다. 또한, 대표 키워드와 동의어, 유사어들을 중심으로 같은 의미를 찾아 유목화로 묶어 치환과 병합, 분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관계 중독', '사랑중독', '중독적 사랑 관계'는 '관계중독'으로 치환하였으며, '음주', '술', '알콜'은 '알코올'로 치환하였다. 관계중독은 '관계+중독'으로 병합하였다. 다른 정제유형으로는 '것', '등', '의', '및'과 같은 무의미한 단어를 삭제하였고 불용어를 추가로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제작업의 예시는 표 1과 같다.

표 1. 정제작업의 예시

정제유형	대표 키워드	2차 정제의 예시
치환 & 병합	알코올	알콜, 음주, 술
	관계중독	관계+중독
	대인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관계
분할	결핍	아동'결핍, 청소년'결핍, 성인'결핍
무의미한 단어삭제	에, 가, 이, 를, 는, 된, 것, 등, 의, 및	불용어를 추가로 삭제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을 위해 Textom을 통하여 수집된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RawDATA를 수집하고 정제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키워드 수는 150개 내외이다(박리나, 황해익, 이강훈, 2019). 2차에 걸친 키워드 정제작업을 시행하는 동안 구간별로 1차, 2차 정제가 완료된 키워드 목록을 살펴 보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행렬을 이용하여 동시 출현빈도를 30×30, 일원모드 행렬(1-mode Matrix)로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전환하였으며, '관계', '중독', '관계중독'과 함께 언급된 키워드들의 공출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서원석, 이강훈, 김석우 (2019); Borgatti, Everett, & Johnson, 2013).

본 연구에서 수행한 네트워크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로 추출 단어들과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수가 최대 100단위 이상인 상위 30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둘째, 키워드 간의 거시적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노드, 밀도, 평균 연결 강도, 평균 연결 거리, 컴포넌트 수, 지름, 네트워크 집중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심성 분석에 앞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UCINET 프로그램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단일 표본 평균 검정을 검증하였다. 셋째, 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워드 클라우드의 각 키워드는 빈도수에 비례하여 크기가 작거나 크게 나타내며,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사용하면 그림에서 주요 키워드를 바로(김종훈, 박선미, 2020)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넷째,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속성과 중심성으로 분석을 한다. 구조적 속성 분석을 위해 UCINET 프로그램으로 노드, 밀도, 평균 연결 강도, 평균 연결 거리, 컴포넌트 수, 지름, 네트워크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의 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중심성 분석을 위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NetDr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였다. 다섯째, 특정 키워드와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 간의 관계를 예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여섯째,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을 살펴보았다.

## 결 과

###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관계중독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전체 10,249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핵심 키워드로 함께 출현한 상위 빈도 5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50개의 키워드 중 상위 30개의 키워드와 공출현 빈도분석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관계중독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 출현 빈도분석 결과 중독(3,743), 관계(3,101), 관계중독(2,100), 외도(1,512), 결핍(1,368), 알코올중독(1,255), 대인관계(1,155), 게임중독(1,157), 문제(867), 사랑(863), 알코올(832), 스마트폰(824), 게임(8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관계중독 관련 상위 30개위 핵심 키워드 공출현 빈도분석**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중독	3743	알코올	832	시간	487
관계	3101	스마트폰중독	824	사회	477
관계중독	2100	게임	815	인터넷	467
외도	1512	사람	734	예방	444
결핍	1368	가족	597	생각	437
알코올중독	1255	치료	583	남편	419
대인관계	1157	자녀	557	부부	415
게임중독	1106	스마트폰	540	부모	406
문제	867	말	539	관계자	404
사랑	863	수치심	506	자신	382

###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전체 네트워크를 구조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중독에 대한 밀도, 평균 연결 거리, 평균 거리, 직경, 컴포넌트 수 등의 주요 지표와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 밀도는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연결 관계의 응집성, 결속도, 복잡성이 높아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많음을 뜻하는데, 관계중독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는 .982로 나타났다. 평균 연결 거리는 1.018이며 네트워크 내의 가장 긴 키워드의 거리는 직경 2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1.018단계를 거치거나 최대 2단계만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상호 연결되어 결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키워드 간 평균 연결 정도는 48.120으로 이는 키워드의 영

향력, 활동력을 인식하는 지표로 연결 정도가 높을수록 키워드 간 전체 네트워크 영향력이 높음을 뜻한다. 네트워크 전체 컴포넌트의 수는 1로, 이는 1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도와 집중도가 반비례 추세(Scott, 2012)를 가지므로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으로 단일 표본 평균 검정을 실시한다. 연구에서 추정된 표본의 네트워크 밀도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김용학, 김영진, 2019), 모집단의 네트워크 밀도를 0으로 가정하고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들은 무선 배열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표 3. 관계중독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구분	밀도	평균 연결 정도	평균거리	직경	컴포넌트 수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	.982	48.120	1.018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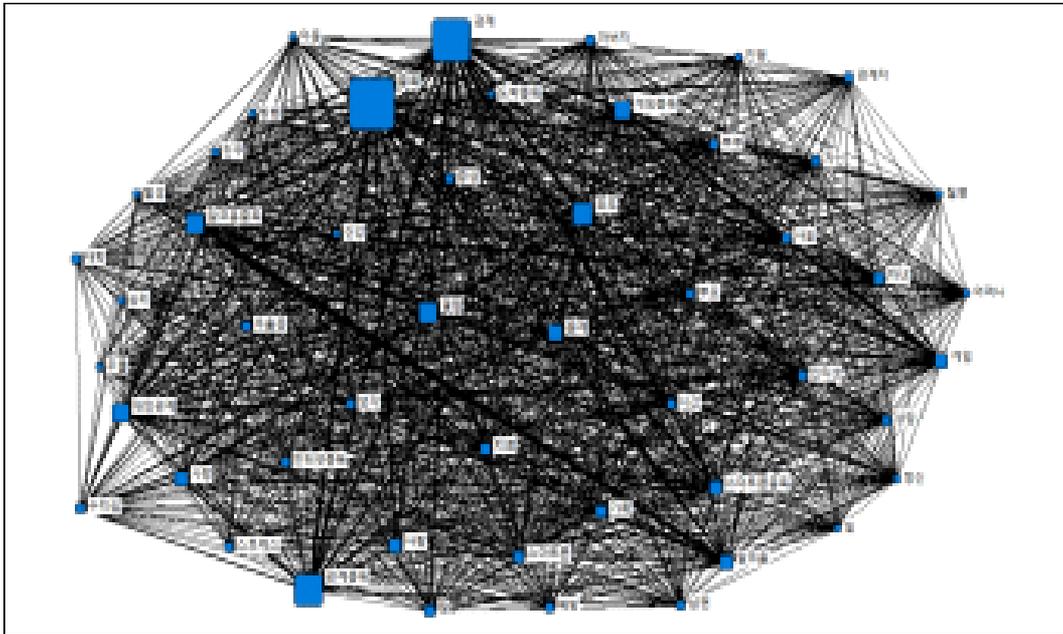


그림 1. 관계중독의 전체 네트워크

5,000개의 표본의 밀도 평균이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도출한다(손동원, 2013). 이에 따라 단일 표본 평균 검정을 통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데이터의 표집 분포 평균은 .982, 표준오차는 8.3094로 도출되었다. 검정통계량인 Z-score은 4.7927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P값에 해당하는 Proportion of absolute differences as large as observed로 값은 .0004로 나타났다. 이는 모집단에서 네트워크 밀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관계중독의 네트워크 내 키워드들 간 관계는 우연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곽기영, 2017; 서원석 외 2019)으로 표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 분석

전체 네트워크에서 키워드가 위치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관계중독에 대

한 네트워크 중심성을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살펴본 결과,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중독(.160)으로 나타났으며, 관계(.160), 관계중독(.091), 외도(.091), 결핍(.074)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연결 중심성은 nDegree의 값으로 표기하였고 nDegree는 네트워크 크기가 연결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네트워크 크기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연결 중심성(Faust & Wasserman, 1993)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독, 관계, 관계중독, 결핍 순으로 관계중독의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로 나타났고 연결 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근접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타 키워드와 가장 인접하게 위치하는 키워드는 중독(1.00)로 나타났으며, 관계(1.00), 사람(1.00), 문제(1.00), 외도(1.00)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 키

워드 간 가장 큰 매개 역할을 가지는 키워드는 중독(0.52)로 나타났으며, 관계(0.52), 관계중독(0.52), 결핍(0.52), 알코올중독(0.52) 순으로 나타났다.

## 관계중독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관계중독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타 키워드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공출현 빈도와 중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와 결핍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에고 네트워크 사이즈는 49, 타이는 7,286, 평균 연결거리는 1,0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50개 키워드 중 1차 관계 키워드의 수가 49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타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제 키워드가 평균적으로 1,040개의 연결을 지나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에고 밀도는 98.138로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제를 중심으로 응집력이 높음으로 볼 수 있었다. 연결 중심성은 .071, 근접 중심성은 1.00, 매개 중심성은 .52로 나타났으며,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를 보더라도 중심에 있는 문제라는 키워드가 여타 키워드와 높은 밀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 키워드를 결핍으로 선정하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핍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결핍의 에고 네트워크 사이즈는 49, 연결 수치인 타이는 7,013 평균 거리 1,040이다. 1차 관계에 있는 키워드의 수가 전체 50개 키워드 중 49로, 여타 키워드와 결핍 키워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거리로 볼 때 1,042개의 연결을 걸쳐서

전체 네트워크 키워드 도달할 수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다. 에고 밀도는 97.591로 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응집력이 높음으로 볼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은 .068, 근접 중심성은 .98, 매개 중심성은 .48로 나타났으며, 에고 네트워크 시각화에서 볼 수 있듯 중심 키워드가 높은 밀도로 여타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관계중독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CONCOR 분석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하위집단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위 50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 간 상관 행렬을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2, 표 4와 같다. CONCOR 분석을 통해 관계중독 네트워크의 구조적 그룹을 살펴본 결과,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키워드 간의 관계성은 첫째 군집 1에는 '상당', '건강', '질병', '생각', '말', '일', '우울증', '부부', '방법', '문제', '사회', '발생', '증상' 등의 키워드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되어 정신건강과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유사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에는 '사랑', '심리', '대학', '우울', '외도', '수치심', '결핍', '관계', '중독', '관계중독', '아들', '사람', '남편', '자신' 등의 키워드들이 군집으로 형성되어 정서 및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3은 '도박중독',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부모', '게임', '게임중독', '인터넷', '예방', '친구' 등의 키워드들이 군집을 나타내며 이는 과몰입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몰입하거나 지나치게 깊이 파고드는 것 등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키워드들이 군집 되어있음을 도출하였다.

군집 4는 아버지, 어머니, 진행, 알코올, 가족,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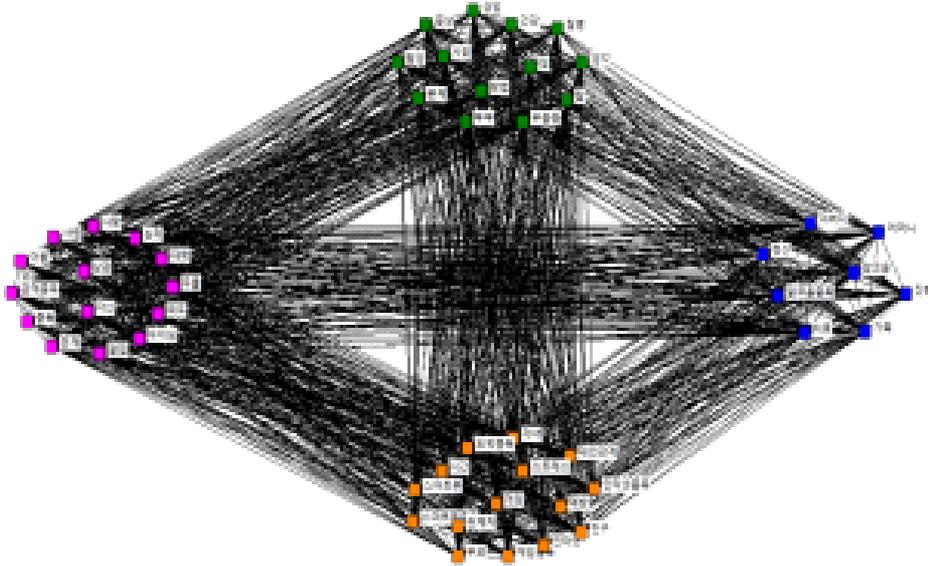


그림 2.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CONCOR 분석 시각화

표 4. 관계중독 키워드 CONCOR 분석

군집명	표집분포 평균
정신건강 키워드	상담, 건강, 질병, 생각, 말, 일, 우울증, 부부, 방법, 문제, 사회, 발생, 증상
정서 및 사고 키워드	사랑, 심리, 대학, 우울, 외도, 수치심, 결핍, 관계, 중독, 관계중독, 아들, 사람, 남편, 자신
과몰입 키워드	도박중독,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부모, 게임, 게임중독, 인터넷, 예방, 친구
사회적지지 키워드	아버지, 어머니, 진행, 알코올, 가족, 알코올중독, 정신, 치료

코올중독, 정신, 치료 등의 키워드들이 군집으로 형성되어 이는 관계중독의 사회적 지지의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주요 키워드 및 키워드 간 구조로 살펴보는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관련 연구의 경향성과 주요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계중독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계중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거쳐 공출현 빈도분석, 거시적 네트워크 유의성,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관계', '중독', '관계중독'에 대한 상위 30개 주요 키워드 및 출현 빈도를 통해 살펴본 주요 주제어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이 최상위 공출현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후 알코올중독, 대인관계, 게임중독, 문제, 사랑, 알코올 순으로 높은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관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어 중독, 관계, 외도, 결핍 등의 높은 공출현 빈도는 관계중독과 관련성 있는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며,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관계중독에 대한 거시적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낮은 집중도와 높은 밀도를 가진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낮은 집중도와 높은 밀도는 반비례 관계임(손동원, 2013)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언급된 키워드들 간 상호 호혜적으로 응집성이 높고, 연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관계중독에 대한 키워드들이 높은 밀도를 보여 키워드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특정 키워드 군집에 교류가 집중되지 않고 평등하게 배분된 상태임(곽기영, 2017)을 의미한다. 게다가 관계중독에 대한 평균 연결거리가 낮아 키워드 간 연결 거리가 짧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관계중독에 대한 키워드들의 응집성이 높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서원석, 원효석, 김석우 (2021)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손혜선, 천성문, 2022)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통계적 수치에 대한 신뢰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 알코올중독, 대인관계 등이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키워드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높은 연결 중심성이 나타난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에 있어 핵심 키워드가 관계중독과 외도와 결핍, 대인관계로 회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배우자에 대한 갈망과 상대방에 대한 소유 욕구를 행동지표인 집착 행동을 통하여 파악한 연구(손동원, 2013)와 맥을 같이한다. 집착 행동은 배우자의 외도 가능성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는 기제인 것은 분명하나 역설적이게도 정도가 지나칠 때는 관계의 질을 저시켜 관계의 종결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은 관계 종결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관계를 성급히 시작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관계 종결 후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려는 행동의 빈도와 시간 등에 초점을 두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중독 네트워크에 대한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높은 상위 근접-매개 중심성으로 나타난 키워드는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 순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의 키워드 간 근접도로 정의하며 특정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얼마나 중앙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모든 타 키워드들과 인접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키워드들 간 매우 짧은 연결 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독, 관계, 사랑, 문제, 외도는 관계중독의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 중심성이란 네트워크에서 키워드가 중간에서 얼마나 매개자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 및 정보의 흐름에 있어 높은 통제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중개자 역할을 매우 잘하는 키워드로 서로 다른 하위 주제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근접·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중독, 관계, 관계중독, 외도, 결핍으로 나타남은 연결 중심성에서 나타난 키워드들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중독, 관계, 관계중독, 결핍, 알코올중독 등 이러한 키워드들은 상대적으로 빈도 순위보다 상승한 키워드로 키워드 간의 최단 경로 상에서 구조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네트워크의 하위집단 키워드를 분류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정신건강), 군집 2(정서 및 사고), 군집 3(과몰입), 군집 4(사회적 지지)로 4개의 키워드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군집 1(정신건강)에서는 관계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담, 건강, 질병, 생각, 말, 일, 우울증, 부부, 방법, 문제, 사회, 발생, 증상 등이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중독이 우울, 역기능적 분노 표현, 심리적 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정구철, 2021)와도 일치한다. 이는 관계중독이 우울증, 질병, 건강, 상담 등을 보았을 때 관계중독의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병리적인 관계 유형을 가지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계중독인 사람들은 중독적인 관계가 깨지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관계를 찾게 된다. 이처럼 우울은 관계중독인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정은정, 2018). 또한, 관계중독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 장면에서 만날 경우, 치료자는 이들이 거절 민감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자신의 증상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침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각이나 말을 함에 있어서 방어적인 표현이 강하다. 따라서 관계중독인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다.

둘째, 군집 2(정서 및 사고)에서는 사랑, 심리, 대학, 우울, 외도, 수치심, 결핍, 관계, 중독, 관계중독, 아들, 사람, 남편, 자신으로 핵심 키워드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양식이 상호작용하여 관계중독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이지원, 이기학, 2014)와 일치한다.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해소를 원하게 되며, 이러한 성향들은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관계 중독인 사람들은 소통의 욕구를 다른 곳에서 해소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심리적 고립감과 결핍을 증대시켜 정서조절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군집 3(과몰입)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키워드들이다. 도출된 키워드는 도박중독, 자녀,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간,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부모, 게임, 게임중독, 인터넷, 예방, 친구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 자녀, 부모 등 대인관계에 대해 의존하는 경우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중독으로도 발전될 위험이 있다는 연구(김선숙, 2013)가 이를 지지해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점점 스마트폰, 게임, 도박, 인터넷 등에 할애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중독 위험이 커진다. 즉,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대체물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과몰입하게 되어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특정 항목의 중독자들이 다른 행위나 물질에도 중독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Laaser, 1992)에서도 확인된다.

네 번째, 군집 4(사회적 지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진행, 알코올, 가족, 알코올중독, 정신, 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하여 공동 의존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또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자, 1998). 알코올중독자는 친목을 잘 하지 않고, 자조집단 참여율이 낮다. 그에 비해 가족의 공동 의존증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중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 알코올중독은 신체적, 정신건강으로 인해 가정 및 직장에서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역할 수행, 개인의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 후유증 등 심각한 생활의 곤란을 초래하는 만성적이고 의학적이며 가족적인 질병이므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의 관계중독 키워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 정서 및 사고, 과몰입, 사회적 지지 영역을 키워드 군집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계중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등을 대상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새롭게 통찰을 발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관계중독의 치료적 개입 및 연구 분야의 발전에 있어 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 방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에 관한 소셜미디어에서 불특정 다수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데이터 분석이 되었으므로 관계중독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했으나 이는 관계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전문적인 학술지만 추출한 전문가의 키워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중독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을 살펴

보는 후속 연구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한 포털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키워드 추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포털사이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의 기본적 속성과 중심성만을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이후 관계중독의 중심을 이루는 하위집단별 속성과 주제 등 관련 변인들에 관해 다양한 각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곽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 김경철, 김은혜 (2017).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유아부모교육의 방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37(4), 741-758.
- 김도희. (2022).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3), 469-479.
- 김선숙 (2013). 청소년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167-176.
- 김송자 (1998).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공동의존증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민 (2016). **심리적 외상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학, 김영진 (2019).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종훈, 박선미 (2020).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유아놀이 관련 연구동향 탐색. **한국산학기**

- 술학회논문지**, 21(2), 296-303.
- 박리나, 황해익, 이강훈 (2019). 유아기 인성교육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열린유아교육연구**, 24(4), 171-197.
- 박윤, 양진희(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장애유아 통합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351-372.
- 백지예 (2020).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대학생의 심리적 고통감과 관계중독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병렬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빅데이터전략연구소 (2016). **빅데이터개론**. 서울: 광문각.
- 서원석, 원효석, 김석우 (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1(1), 113-136.
- 서원석, 이강훈, 김석우 (2019).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97-124.
- 손동원 (2013).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손승희 (2017).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손혜선, 천성문 (2022).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국내 외상 후 성장 연구동향 분석. **교육치료연구**, 14(10), 23-41.
- 송연주 (2019). 관계중독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연구동향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7(4), 699-721.
- 송연주, 최가연, 박대순 (2019). 불안애착이 심리적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292-301.
- 안명란, 홍혜영 (2016).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8(1), 75-100.
- 오유미 (2016).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대인외상의 관계: 해리경험, 관계중독,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애 (2020). **초기성인기 불안장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장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임한나 (2021). **거부민감성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유미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타인-중심성 도식, 기본심리욕구충족의 좌절, 관계중독의 역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구철 (2021).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155-161.
- 정은정, 정남운(2019). 관계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건강심리학회지 건강**, 24(4), 947-968.

- 정은정 (2018). **관계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하은 (2020). **아동기 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출, 박수정(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홍세희, 조기현,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연구동향. **한국청소년연구**, 30(2), 273-301.
- 황명구, 송현정 (2019). 관계중독 연구 활성화를 위한 동향 분석: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98-111.
- Borgatti, S. P., Everett, M. G., & Johnson, J. C. (2013). Centrality. *Analyzing social networks*, 189-208.
- Faust, K., & Wasserman, S. (1993). Correlation and association models for studying measurements on ordinal relations. *Sociological methodology*, 23, 177-215.
- Laaser, M. R. (1992). *Faithful & True: Sexual Integrity in a Fallen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Scott, J. (2012).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Whiteman, T., Petersen, R. (1998). *Victim of love? How you can break the cycle of bad relationships*. Colorado: NavPress Publishing Group.

원 고 접 수 일 : 2023년 09월 04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3년 10월 06일

게 재 확 정 일 : 2023년 10월 16일

## A Study on Social Perception of Relationship Addiction Using Big Data: Focused on Keyword Network Analysis

Ji Young Lee

Seong Moon Cheon

Min Ji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ocial perceptions of relationship addiction around keyword networks through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collected extensive data on relationship addiction from 2017 to September 1, 2022, from three domestic and foreign portal sites using Textom. The analysis encompassed target selection, data collection, purification, 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The study revealed that, firstly, the words with a high frequency of simultaneous appearance included addiction, relationship, relationship addiction, infidelity, deficiency, alcohol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game addiction. Secondly,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ranked high in the order of addiction, relationship, relationship addiction, infidelity, and deficiency, with addiction being the most central keyword. Keywords with the most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the network followed the order of addiction, relationship, relationship addiction, deficiency, and alcoholism. This suggests their structural influence in the shortest path between keywords.

*Key words: Big Data, Relationship Addiction, Keyword Network Analysis, Social Perception.*



#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준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 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 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외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정관 제1장 4조와 제6장 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협회 준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협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술지 발간 및 접수)** 학술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협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술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b>「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b>	
<b>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b>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b>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b>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b>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b>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 ① 원고제출시 1단. 게재확정 후(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으로 제출).
  - ② 편집용지: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세로
  - ④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⑤ 마침표 다음: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 ⑥ 논문 제목: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⑦ 저자: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⑧ 소속: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⑨ 국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단어수 120-150
  - ⑩ 주요어: 중고딱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 ⑪ 본문: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 ⑫ 본문제목 1단계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제목 2단계 : 중고딱 11호,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제목 3단계 : 신명조 10호, 양쪽 정렬, 들여쓰기 8
  - ⑬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내어쓰기 30
  - ⑭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5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⑮ 영문초록 저자: 신명조 10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⑯ 영문초록 소속: 신명조 9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⑰ 영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단어수 120-150
  - ⑱ 영문초록 key word: 중고딱 9호, 기울기,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위 15

⑩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⑪ 표제목, 그림제목: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진하게

표 작성의 줄긋기: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제정한 연구 진실성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술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 이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키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 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 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 ; )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rville He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1~2인인 경우

괄호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2017), (Harville & Helen, 2020)

본문속에 참조 ... 윤선자와 윤정화(2017)는... , Harville과 Helen(2020)은...

마.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1) 첫 번째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박은아, 2017), (Harville, Helen, & Hendrix, 2020)

본문속에 참조 ... 윤선자, 윤정화와 박은아(2017)는..., Harville, Helen과 Hendrix(2020)는...

(2) 반복 인용

괄호안에 제시 ... (김혜진 외, 2017), (Harville et al., 2020)

본문속에 참조 ... 김혜진 등(2017)은..., Harville 등(2020)은...

바. 저자가 6인이상인 경우

(1) 첫 번째 인용

공저자 6인까지 제시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됨(김혜진 외, 2017),

(2) 반복 인용

3인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이지영 (2015).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서울: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는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용. **상담학연구**, 10(2),1217-1228.

-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는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4-229). 서울: 한국심리학회.

-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e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④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2020. 02. 24. <http://news.imaeil.com/Entertainments/2020022410013569691>.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 S. (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 R. (1980/2007).].

Rogers, C.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 E. (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 K. (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 Y., & Kim, K. K. (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imore, USA.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 E. (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 (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 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7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성을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회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